

Hana  하나 실천해보는

행복노하우

은퇴설계 가이드

Hana

하나 실천해보는

행복노하우



은퇴설계 가이드

‘손님의 행복’

100세 시대에도 KEB하나은행이 변함없이 전하고 싶은 가치입니다

오늘날 ‘은퇴’는 삶의 여정에서 누구나 맞이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일 중심의 삶을 뒤로 하고 가족과 함께하기, 건강하게 먹고 마시기, 무엇이든 내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몰두하기처럼 내가 소망하던 것들로 삶을 채워볼 기회입니다. 그래서 은퇴란 삶의 자기결정권이 가장 커지고, 진정 사람 사는 맛을 느끼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라이프 스타일이 이어지는 은퇴가 되려면 재정적인 준비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산관리를 통해 노후자금을 늘려가야 합니다. 은퇴한 뒤에는 모아놓은 자산으로 어떻게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 것인가로 자산관리의 전환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길어진 인생을 고려하면 손님 한 분 한 분마다 세심한 자산관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100세 시대에 은행의 금융서비스가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KEB하나은행은 올해로 세계적인 금융전문지 유로머니(Euromoney)가 선정하는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을 12회 수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산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4년부터 손님의 행복한 미래 설계를 지원한다는 '행복knowhow' 브랜드 하에 다양한 은퇴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삶을 누리는 것, 웰리빙(Well-living)를 강조하고 인생 여정마다 손님과 함께하며 비재무적인 영역까지 금융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은퇴설계 가이드 'Hana 하나 실천해보는 행복노하우'가 손님을 더 나은 미래로 안내하는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KEB하나은행은 손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손님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은퇴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KEB하나은행은 휴머니티(Humanity)를 바탕으로 '손님행복'의 가치와 전통을 계승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4월

KEB하나은행 은행장

지 영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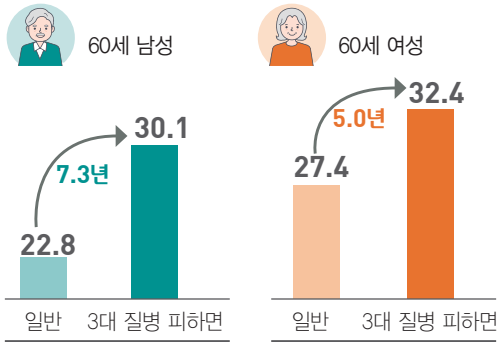
은퇴 후 30년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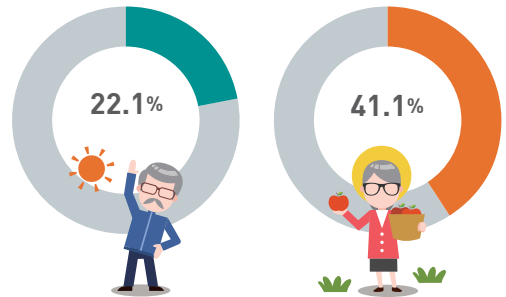
60세부터 남은 기대수명은 남성 22.8년,
여성 27.4년이지만 암(癌),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피하면 기대수명은 남성 30.1년
여성은 32.4년으로 늘어납니다

60세 남성 5명 중 1명(22.1%)
여성 5명 중 2명(41.1%)이
30년 넘게 삽니다

경우별 60세 남녀의 기대수명(년)



지금 60세 남녀가 30년 이상 살 확률(%)



자료: 통계청(2018년)

은퇴 후 30년 생각해 볼만한 라이프 스타일



일을 계속하자

‘나는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합니다.
동료들과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 뭐할까’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4가지 취미를 찾자

바쁜 은퇴자일수록 행복하다고 합니다. 행복한 은퇴자는 정기적으로 3~4개 취미활동을 합니다. 1~2개 취미에만 매달리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덜 행복했습니다.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

은퇴 후 여유시간이 많아지면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하루하루의 감정상태와 직결됩니다. 혼자인 사람보다는 배우자가 있는 은퇴자가 행복했고, 특히 부부가 비슷한 시기에 은퇴한 사람이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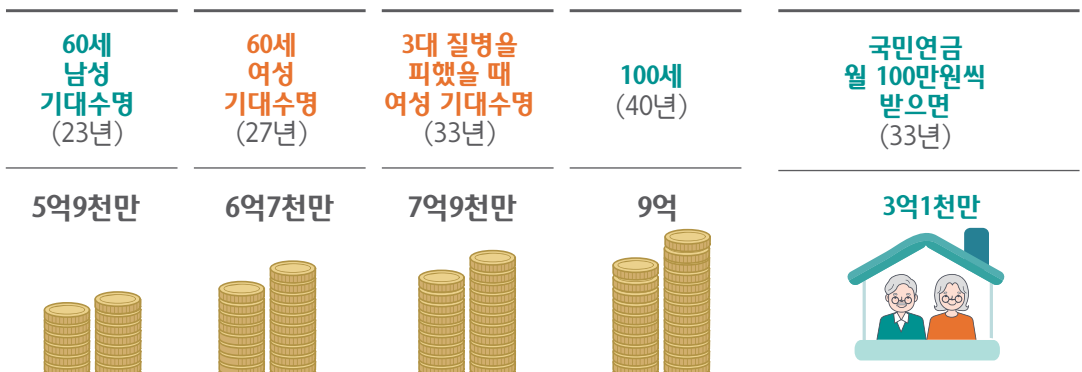
운동에 시간을 할애하자

은퇴자가 매주 조깅(혹은 수영이나 자전거)을 하면 사망률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매일 25분에서 30분 정도 걸어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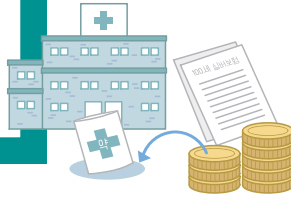
노후기간이 길어질수록 필요한 은퇴자금이 늘어납니다.

노후기간별 월 256만원을 만들기 위한 필요 은퇴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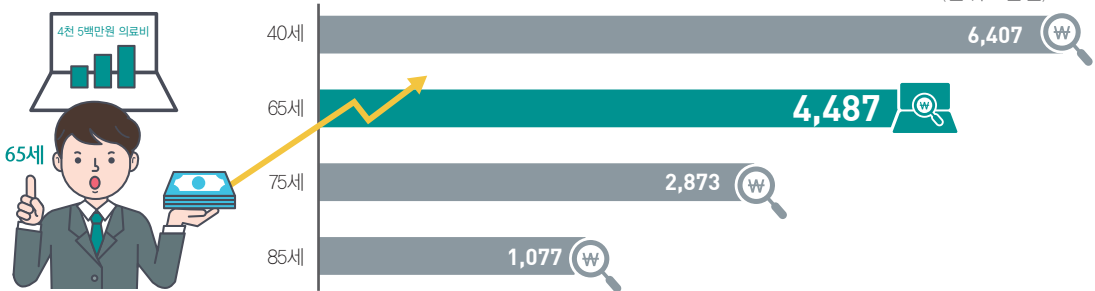
주: 2017년 가구주 60대 이상 도시가구의 총 지출액(256만원) 기준
 물가상승률 연 1.9%(통계청 발표 '10년~'18년까지 연평균 물가상승률), 은퇴자금 수익률 연 3.53%(금융감독원 발표 '17년 말 기준 직전 9년간 퇴직연금(DC형·기업형IRP) 장기수익률)을 가정하여 계산하며 제세금 및 비용은 고려하지 않음.
 자료: 2018년 통계청(2017년 가계동향조사 등) 및 금융감독원(2017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KEB하나은행 은퇴설계센터 작성

은퇴 이후에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비는?



2015년 기준으로 65세인 사람은
앞으로 약 4천5백만원 의료비 지출이 예상됩니다.

(단위 : 만원)



주: 생애 경상의료비 추정 결과에 가계부담비중(37%)을 적용
자료: 2017년 보건사회연구원 발표자료(2017 한국 의료 질 보고서)를 바탕으로
KEB하나은행 은퇴설계센터 작성

나중에 거동이 불편해지면 어디서 요양할까?



요양원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도움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들을 보살피는 곳으로,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됩니다.
요양병원은 노인을 치료하는 의료시설로, 병원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비교

요양원	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등급 1~2등급을 받은 어르신 요양보호사  50~100만원	 의료시설 노인성 질환으로 의료적 처치 및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 의사 및 간호사(간병인 별도)  80~300만원
내용	
구분	
입소자격	
인력	
월 비용	

자료: 이한세,미래에셋은퇴연구소(2017년)

**생활비, 의료비
이외에 목돈이
들어가는 일들...**



- 4년제 대학비
- 자녀 결혼비용
-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 창업비

은퇴 이후 자녀의 유학비나 결혼자금, 창업비용이나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을 고치기 위한 돈처럼 생활비나 의료비 이외에 갑작스레 목돈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벤트별 예상(평균) 비용

4년 대학 등록금	결혼비용	인테리어 비용	리모델링 비용	창업비용
				
1억5천만원	2억6천만원 (집 마련 1억9천만원)	2천만원	9천만원	3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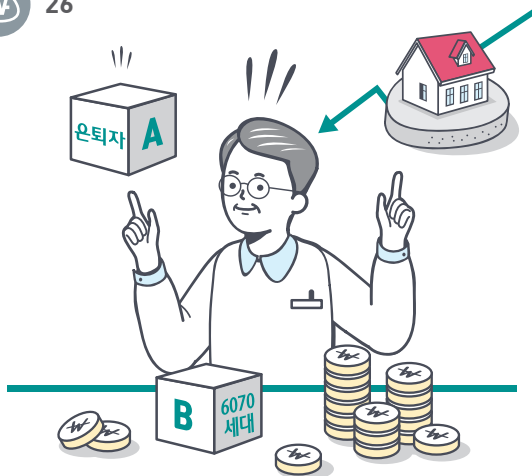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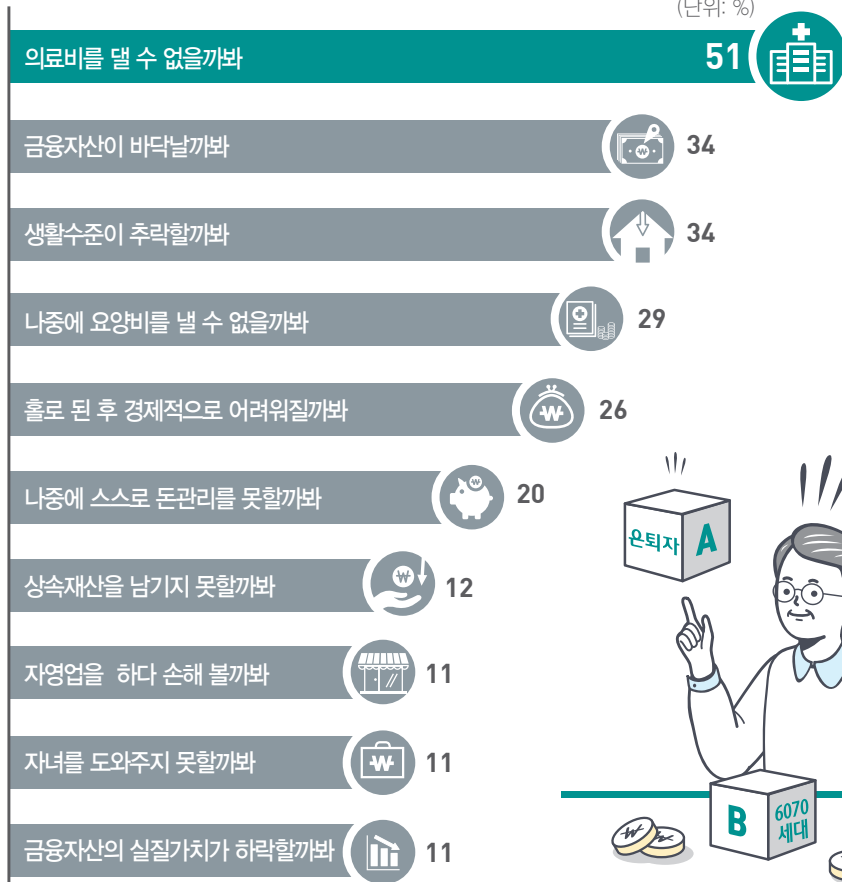
자료: Times Higher Education(2017년), 듀오(2017년), 김종민(2018년), 창업진흥원(2017년)

국민연금 받는 6070 온퇴자가 안고 있는 걱정거리는?



앞으로 들어갈 의료비나 요양비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되거나
금융자산이 바닥나는 것, 생활수준이 추락하는 것!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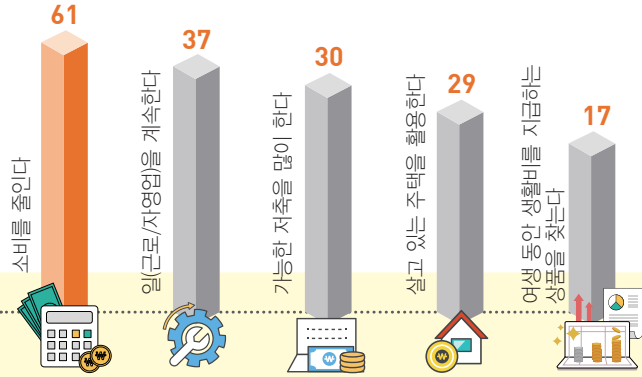
자료: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19년)

국민연금 받는 6070, 앞으로 경제적인 걱정을 덜기 위해



무엇을 하시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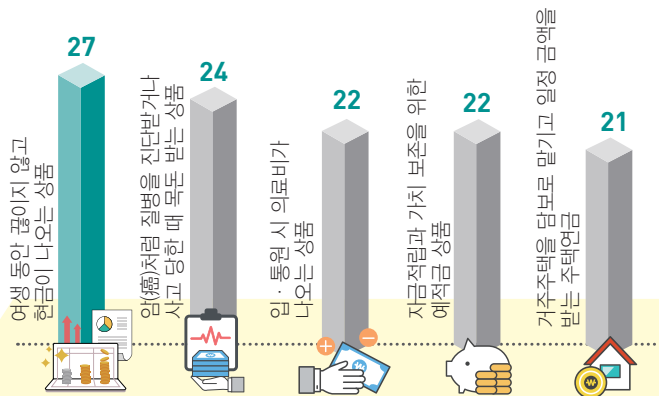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19년)

어떤 금융상품을 넣으시겠어요?

(단위: %)



자료: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19년)

Contents

[1장]

100세 시대에 살다

100세 시대의 은퇴준비	12
노후가 길어지면 커지는 리스크(Risk)	14
은퇴준비 늦으면 후회한다	20
나이 들수록 금융자산이 든든하다	22

행복한 노후를 위한 현명한 은퇴준비

[2장]

은퇴 이후 어떻게 살까?	24
은퇴 이후 얼마나 쓸까?	27
은퇴할 때 얼마나 있어야 할까?	30

[3장]

연금제도 200% 활용하자

누구에게나 열린 국민연금	34
월급도 받고 은퇴준비도 한다, DB·DC형 퇴직연금	38
절세혜택과 노후준비를 동시에 IRP	40
스스로 준비하는 연금저축	43
소기업가를 위한 퇴직금, 노란우산공제	49
내 집 내 땅에서 월급 받기 주택연금, 농지연금	51

[4장]

은퇴준비 이렇게 하자

은퇴자산관리 투자로 하자	56
장기투자 해야 하는 이유	57
글로벌 분산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	58
‘100-나이 법칙’, 나이가 들수록 주식의 비중을 줄여라	60
투자관리를 도와주는 금융상품	61
금융상품 제대로 활용하자	63
노후 현금흐름을 만들어주는 금융상품	64
내 재산 내 뜻에 따라 쓰이도록 도와주는 신탁	68
은퇴하기 5년 전에 점검해야 할 것들	69
지금 은퇴할 때 실행해야 할 것들	73

[5장]

은퇴준비, 이것도 궁금해요

국민기초연금 65세가 되면 받는다는데, 나도 받을 수 있나요?	78
국민연금 받을 때 세금 내나요?	79
헤어진 부부 연금도 갈라 받나요?	80
직장에서 퇴직했어요. 국민건강 보험료 어떻게 달라지나요?	81
직장인 자녀가 있어요.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82
나이 들어 거동이 불편할 때, 요양원이 낫나요? 요양병원이 낫나요?	83
만약 우리 부모님이 치매라면, 어디를 찾지?	84
퇴직 후 재취업 · 창업정보 어디서 찾나요?	85
세액공제, 소득공제, 비과세 차이점이 뭐지요?	87
내 연금, 금융생활 정보 한번에 찾을 수 있는 곳은?	89

[1장]

100세 시대에 살다

100세 시대의 은퇴준비

‘100세 시대’는 이제 당연한 말이 되었습니다. 매스컴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고령화가 진행된다거나 낮은 출산율 문제를 전합니다. 최근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100세 시대임을 체감할 때는 나

이 드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걱정스러울 때이지요.

100세 시대라는 말 그대로 100년 넘게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UN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100세를 넘긴 백세인(百歲人)이 3천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30여년 뒤인 2050년에는 백세인이 8만명에 이를 거라고 합니다.¹⁾ 강원도 속초시가 백세인으로 채워지는 셈입니다. 2050년 90세 이상은 178만명에 달한다는 전망입니다. 이는 오늘날 강원도 전체 인구보다 많습니다. 지금 60~70대가 30년 뒤 90세, 100세를 넘길 테지요. 우리는 이미 100세 시대에 사는 셈입니다.

60부터 ‘30년+’의 삶을 준비해야

지금까지 은퇴준비 하면 보통 60세에 남은 기대수명을 노후기간으로 삼았습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60세 남성은 22.8년, 여성은 27.4년이었지요. 하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그보다 오래 사는 사

1)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2017), Profiles of Aging 2017

람이 주변에 참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① 우리나라 3대 사인(死因)을 피하면 60세 기대수명이 30년 이상으로 연장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으로 사망에 이르는 것을 피한다면 60세 남성의 기대수명은 30.1년(+7.3)로, 여성은 32.4(+5.0)년으로 길어집니다. 이런 3대 질병에 대한 가족력이 없거나 평소 건강관리만큼은 자신 있다고 한다면 60부터 30+는 거뜰하다는 의미입니다.

② 60세 남성 5명 중 1명, 여성 5명중 2명은 30년 이상 삽니다.

기대수명은 어디까지나 평균치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2명 중 1명은 기대수명을 넘어 더 오래 삽니다. 부부도 한날한시에 떠나기 어려운 일인데, 사람마다 수명이 다른 게 당연합니다. 2017년 우리나라 생명표를 바탕으로 계산해보면 60세 남성 5명 중 1명(22.1%), 여성 5명 중 2명(41.4%)은 90세 이상 삽니다.

60세 이상 가구의 지출액과 은퇴 기간별 필요자금

(단위: 원)

구분	60세 남성 기대수명	60세 여성 기대수명	3대 사인(死因) 피했을 때 여성 기대수명	100세
	23년	27년	33년	40년
최저생활비 113만원 의식주비, 대중교통비, 세금, 이자비용, 사회보험비	2억6천만	3억	3억5천만	4억
필요생활비 55만원 가정용품(서비스)비, 통신비, 이미용비	1억3천만	1억4천만	1억7천만	1억9천만
여유생활비 88만원 주류, 담배, 오락, 문화, 식사, 자차구매/유지비, 숙박비	2억	2억3천만	2억7천만	3억1천만
합계	5억9천만	6억7천만	7억9천만	9억

주: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도시가구의 총 지출액(256만 원)을 비목별로 구분
물가상승률 연 1.9%(통계청 발표 '10년~'18년까지 연평균 물가상승률), 은퇴자금 수익률 연 3.53%(금융감독원 발표 '17년
말 기준 직전 9년간 퇴직연금(DC형·기업형IRP) 장기수익률)을 가정하여 계산하며 제세금 및 비용은 고려하지 않음.

자료: 2018년 통계청(2017년 가계동향조사 등) 및 금융감독원(2017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KEB하나은행 은퇴설계센터 작성

기대수명보다 더 오래 살 것을 생각하면 30년 이상을 노후기간으로 삼아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60세 남성의 경우 기대수명(23년)을 기준으로 하면 매월 최저생활비 113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2억6천만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오래 살 것을 고려하여 은퇴기간을 10년(33년) 늘리면 필요 은퇴자산은 3억5천만원으로 9천만원 더 늘어납니다. 최저생활비는 국민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보고 필요생활비와 여유생활비를 마련해야 한다고 하면, 은퇴기간 23년일 때에는 3억3천만원, 33년일 때에는 4억4천만원이 필요합니다.

기네스북(Guinness World Records)에 오른 30+ 고령자들

여러가지 다양한 분야의 세계기록들을 모아놓은 기네스북에는 전 세계 최고령자 기록도 빠지지 않습니다. 호주에 사는 바이올렛 로빈(Violet Robbins)씨는 세계 최고령 자원봉사자입니다. 2010년 기네스북에 오를 당시 107세였고, 수십년간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하인츠 벤데로스(Heinz Wenderoth)씨는 97세에 의학박사 학위를 받아 이분야 최고령 기록을 세웠습니다. 미국 아이스하키 선수 마크 서티치(Mark Sertich)씨는 2017년 최고령 선수기록을 받을 당시 무려 96세였다고 하네요. 이 외에도 90세를 훌쩍 넘긴 요가선생, DJ, 현역 파일럿(pilot) 등 최고령 기록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몸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100세 시대를 사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게 아닐까요?

노후가 길어지면 커지는 리스크(Risk)

거친 파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다 밑 암초가 훨씬 무서웠던 거지요.²⁾ 특히 항해가 길어질수록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르는 리스크를 조심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위험을 뜻하는 ‘리스크(Risk)’는 암초나 절벽을 뜻하는 그리스인들의 항해용어인 ‘리자(rhiza)’, ‘리지콘(rhizikon)’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항해 중인 뱃사람에게는

2) 김경원(2018), 어원으로 보는 경제 이야기, 세종서적

100세 시대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이상으로 길어진 노후, 언제 어디서 어떤 리스크를 만날 지 모르지요. 하지만 노후라는 항로에서 리스크가 숨어 있는 곳을 미리 알아 둔다면 한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 돈 없이 나만 남는 ‘장수리스크’

장수리스크(longevity risk)란 은퇴 이후에 모아놓은 금융자산을 모두 써버리는 리스크를 말합니다. 돈이 떨어진 채 나만 덩그러니 남는 상황인 것이지요. 장수리스크 관리에 실패하면 생활수준이 추락하고 맙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를 맞이한 일본을 들여다보면, 장수리스크 관리에 실패한 은퇴자들은 조만간 노후자금이 떨어질 게 분명해지자, 감히 남은 돈에 손대지 못하고 연금만으로 겨우 월세 내고 끼니를 때우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 돈이 떨어지기도 전에 생활수준이 먼저 하락한 거지요.³⁾

KEB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65~74세 은퇴자에게 경제적으로 걱정되는 게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 3명 중 1명(34%)은 ‘금융자산이 바닥날까봐’ 걱정스럽다고 응답했습니다. ‘생활수준이 추락할까봐’ 걱정된다는 경우도 3명 중 1명(34%)에 달했습니다.

장수리스크를 관리하려면 금융자산이 충분하다고 아무렇게나 빼 쓰지 말아야 합니다. 은퇴 초기 돈을 지나치게 많이 써버리고 나면 이미 사라진 은퇴자금을 어디서 다시 구하기는 몇 배나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는 동안 돈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은퇴자금을 꺼내 쓰기 전에 치밀한 인출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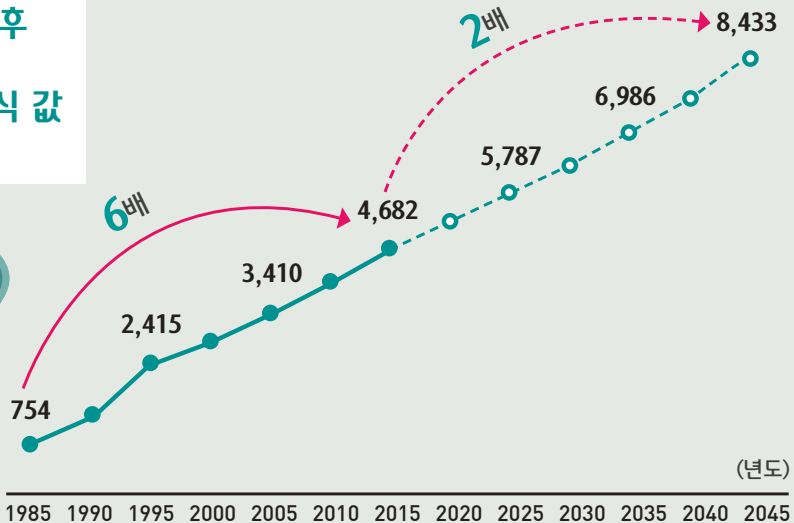
➔ 눈 뜨고 코 베이는 ‘인플레이션 리스크’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가만히 있어도 가진 돈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실제 돈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돈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과 서비스 수량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1985년만 하더라도 서울에서 745원만 있으면 자장면 한 그릇을 사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에는 평균적으로 자장면 한 그릇에 4,682원은 내야 한다는 군요. 30년만에 자장면 값이 6배가 된 것입니다. 그 동안 물가가 꾸준히 올랐기 때문입니다.

3) NHK 스페셜 제작팀(2016), 노후파산, 다산북스

1985년 이후 서울 평균 자장면 외식 값

(단위: 원)



주 : 점선 부분은 연 1.9% 물가상승률을 적용할 때 예상치

자료 : 2018년 통계청 품목별 소비자물가 및 행정안전부 지방물가정보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KEB하나은행 은퇴설계센터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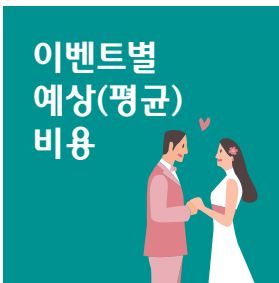
앞으로는 어떨까요? 2010년 이후 2018년까지 물가상승률은 평균 연 1.9%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수준의 물가상승률이 계속된다면 30년 뒤 자장면 값은 8,433원으로 2015년 때보다 2배 가까이 오르게 됩니다. 최근의 물가인상률 수준에 노후가 5~10년에 불과하다면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큰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노후가 30년이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분은 30년 뒤 생활비가 두 배 또는 그 이상으로 늘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갑작스레 들이닥치는 ‘이벤트 리스크’

여기서 이벤트(event)란 은퇴 이후 생활비 이외에 목돈이 들어가는 일들을 말합니다. 노후 생활비만 생각해서 은퇴준비 하면 나중에 맞닥뜨릴 수 있는 여러 이벤트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생활비로 쓸 자금을 떼어서 지출하고 나면 나중의 노후 생활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 유학자금이나 결혼자금을 대고 나니 당장 생활이 어려워져 다시 일자리를 찾아 유턴하는 은퇴자의 이야기를 심심찮게 들어볼 수 있습니다.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내려니 10~20년 뒤 집

이 닳아져 리모델링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성장한 자녀가 창업을 한다며 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때 얼마큼이라도 보태고 싶은 마음은 부모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갖가지 이벤트로 인해 내 삶의 질이 추락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구분	유학비용 ^{주1)}	총 결혼비용 (주택마련 분)	빌라20평 인테리어 비용 ^{주2)}	1층 단독주택 리모델링 ^{주2)}	창업 비용
비용	1억5천만원	2억6천만원 (1억9천만원)	2천만원	9천만원	3억원

주1: 유학비용은 4년 치 평균 미국 대학 등록금(tuition)으로, 체류비 등은 포함하지 않음

주2: 통계에 의한 평균이 아니라 저자(김종민)의 경험에 의한 금액규모임

자료: timeshighereducation.com, 듀오(2017년), 김종민(2018년), 창업진흥원(2017년)

➔ 수명 연장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의료비 리스크’

노후가 30년을 훌쩍 넘기면서 주목해야 할 게 바로 의료비 리스크입니다. 의료비가 생각보다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평생 지출하는 의료비를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2005년 태어난 사람이 평생 4천3백만원 의료비를 지출한다면 2015년에는 7천9백만 원으로 10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난 것입니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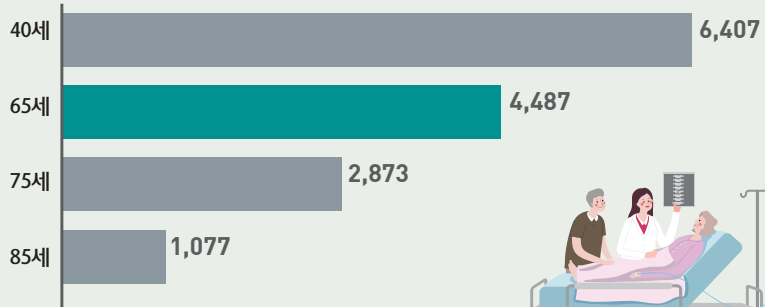
여기서 65세 이후 지출하는 의료비가 생애의료비의 절반 이상(57%)을 차지합니다. 65세인 사람이 남은 생애 동안 지출하는 의료비는 4천 5백만원으로 추정됩니다. 후기 고령기에 남은 의료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85세에도 약 1천만원 의료비 지출이 예상되었습니다.

요새는 85세를 훌쩍 넘기는 초고령 노인들도 늘어나다보니, 은퇴자들이 자신과 배우자의 의료비만이 아니라 노부모 요양비나 의료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현재 노부모가 살아계시면 가급적 부모님의 의료비까지 은퇴설계에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4) 보건사회연구원(2017년), 2017 한국 의료 질 보고서에서 생애의료비(경상의료비) 가운데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제외한 가계 부담 비중을 적용함(2005년 41%, 2015년 37%).

2015년 기준 한국인의 생애 의료비

(단위: 만원)



주: 생애 경상의료비 추정 결과에 가계부담비중(37%)을 적용
자료: 2017년 보건사회연구원 발표자료(2017 한국 의료 질 보고서)를 바탕으로
KEB하나은행 은퇴설계센터 작성



국민연금 받는 60~70대 무엇이 걱정되나?

의료비를 못낼까봐, 금융자산이 바닥날까봐 걱정

지금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은퇴자들은 어떤 걱정거리를 안고 있을까? 2018년 9월 KEB하나은행 은퇴설계센터는 하나금융경영연구소와 함께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650명을 대상으로 경제생활 이모저모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이들은 수도권에 살며 50대 현역시절 다녔던 직장이나 직업에서 물러난 65~75세들입니다.

이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단연 의료비(51%)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진 금융자산이 바닥날까봐(34%), 나중에 생활수준이 추락할까봐(34%)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집에서 요양하거나 요양원에 들어갈 비용을 댈 수 없을까봐 걱정된다는 경우도 29%나 됐습니다.

이런 걱정을 덜기 위해 은퇴자들은 주로 소비를 줄이거나 일을 계속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축을 계속 하겠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저축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벗어난 결과이지요. 이들이 원하는 금융상품을 보면 연금보험처럼 남은 생애 동안 끊이지 않고 현금이 나오는 상품이나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을 보충하고 싶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걱정거리와 해결방법

경제적으로 가장 걱정되는 것

1위	의료비를 낼 수 없을까봐(51%)
2위	금융자산이 바닥날까봐(34%)
3위	생활수준이 추락할까봐(34%)
4위	나중에 요양비를 낼 수 없을까봐(29%)
5위	홀로 된 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질까봐(26%)
6위	나중에 스스로 돈관리를 못할까봐(20%)
7위	상속재산을 남기지 못할까봐(12%)
8위	자영업 하다 손해 볼까봐(11%)
9위	자녀를 도와주지 못할까봐(11%)
10위	금융자산의 실질가치가 하락할까봐(11%)
11위	금융사기 당할까봐(9%)

걱정을 덜기 위해 하려는 행동

1위	소비를 줄인다(61%)
2위	일(근로/자영업)을 계속한다(37%)
3위	가능한 저축을 많이 한다(30%)
4위	살고 있는 주택을 활용한다(29%)
5위	여생동안 생활비를 지급하는 상품을 찾는다(17%)

걱정을 덜기 위해 찾으려는 금융상품

1위	여생 동안 끊이지 않고 현금이 나오는 상품(27%)
2위	암(癌)처럼 질병을 진단받거나 사고 당한 때 목돈 받는 상품(24%)
3위	입통원 시 의료비가 나오는 상품(22%)
4위	자금적립과 가치 보존을 위한 예적금 상품(22%)
5위	거주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금액을 받는 주택연금(21%)

대상: 서울 및 수도권 거주 국민연금 수급자 650명
자료: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19년)

은퇴준비 늦으면 후회한다

일본의 한 경제주간지에서는 60~65세 정년퇴직 남성을 은퇴부유층, 중산층, 빈민층으로 나누고 과거 현역시절의 삶을 비교했습니다. 이중 은퇴부유층은 40대부터 소득이

높아지는 측면도 있었지만 저축행동이나 미래에 대한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들은 30세부터 저축을 많이 했고, 주식과 채권 투자에 적극적이었으며, 퇴직연금과 같은 노후준비를 일찍 시작했습니다. 현재 생활을 희생하더라도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태도도 강했습니다.⁵⁾

우리가 맞이하는 노후는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커지는 리스크를 고려하면 무엇보다 탄탄한 은퇴준비가 필수입니다. 은퇴 이후 재취업을 하겠다, 소비를 줄이겠다는 차선택은 나중에 진짜 실행해 보려고 해도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 추가로 소비를 줄이는 것은 쉽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 생활비가 모자랄 때 재취업 한다?

최근 일본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취업이 늘어난다는 게 이슈입니다. 고령자 취업률이 매년 늘어서 2017년에 800만명에 달하고 취업률로는 약 23%에 이른다는 겁니다.⁶⁾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 고령자 취업률이 일본 못지 않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65세 이상 취업률이 약 31%나 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원하면 고령자도 취업이 문제없다는 증거일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고령자 취업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취업 대기자 역시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고령자 통계를 보면 55~79세 고령자 10명 중 6명(62.4%)은 일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 절반 이상(58.3%)은 일하고 싶은 이유가 생활비 때문이었습니다.

➡ 은퇴 이후 소비를 줄이겠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이미 허리띠를 졸라 맨 형편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노인가구 지출은 전체 가구와 비교해서 각각 19%, 13% 정도 떨어지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36%나 추락해서 미국과 일본보다 두 배나 더 떨어진 겁니다.⁷⁾

5) 일본 주간지 프레지던트(President, プレジデント, 2016년), 김웅철(2016), '은퇴부자'와 '은퇴빈민' 이것이 달랐다,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에서 재인용

6) 일본 총무성통계국(2018.01), 노동력 조사 결과(労働力調査 平成29年(2017年)平均(速報)結果)

7) 성혜영(2016), 한국, 미국, 일본 노인가구의 소비지출 비교, 연금포럼 겨울호 Vol.60

우리나라 노인가구는 소득수준과 소비수준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다시 말해 국민연금을 받거나 직접 돈을 벌거나 해서 들어오는 돈에 맞춰 살림살이를 이어간다는 뜻인데, 그러다 보니 전체 생활비 가운데에서 의식주와 의료비처럼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데 지출이 가장 커졌습니다. 먹고 사는 데 이외에 다른 돈을 쓰지 못하는 만큼 은퇴자들의 삶이 이미 팍팍하다는 뜻입니다.

➔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자녀에게 의탁한다?

70년대 행정고시 출신으로 통계청장과 한국인 최초 IMF 상임이사까지 역임했던 오종남씨. 이미 10년 전에 그는 『은퇴 후 30년을 준비하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자식보험이 깨지고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자녀에게 노후를 의탁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자녀로부터 돌아오는 대답은 실망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믿을 수 있는 건 스스로 대비하는 자기보험이라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⁸⁾

이제는 역으로 자식이 나에게 기대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은퇴한 부모가 40~50세가 된 자식까지 먹여 살려야 하는 상황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년 전 야마다 마사히로(山田 昌弘) 일본 중앙대 교수는 당시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저임금의 임시직만을 전전하는 20~30대 젊은이들을 일컬어 '패러사이트 싱글(parasite single)'이라고 불렀습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 이들이 나이를 먹고도 은퇴한 부모에게 여전히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의 연금이 부모자식의 유일한 소득원이 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니 깨진 '자식보험'이 아닌 '자기보험'만이 든든하다는 10년 전 오종남씨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8) 오종남(2009), 은퇴 후 30년을 준비하라, 삼성경제연구소

나이 들수록 금융자산이 든든하다

‘무릎이며, 허리며, 임플란트며... 병원에 돈을 갖다 바쳐야 살아진다.’

‘자식 만나려면 먼저 외식시켜주마 하고, 손주녀석 용돈도 팍팍 쥐어주어야 한다.’

‘지하철도 공짜니까 먹는 것만 있으면 되는구나 했더니, 다 착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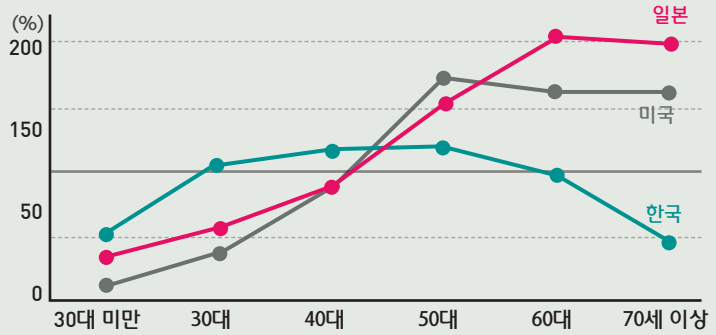
어르신들 모인 자리에 어렵지 않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마주 앉은 분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거나 맞장구를 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 그러니까 금융자산이 있어야 어디든 마음 놓고 다니며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이 있어야 늘어나는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으며, 나중에 거동이 라도 불편하게 되면 자식에게 짐이 될까 노심초사 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60대 이상 은퇴자들이 가장 많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70대 이상 고령자 가계도 전체 평균보다 50% 이상 더 많은 금융자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금융자산이 뒷받침 되니 미국과 일본 은퇴자들은 국민연금을 받거나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더 많이 먹고 마시고 소비합니다.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을 조금씩 털어서 생활비를 보태니 가능한 일입니다. 미국과 일본 고령자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현역시절과 비교해 삶의 질이 크게 추락하지 않습니다.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배경은 은퇴가 인생의 내리막길이 아니라 활기찬 인생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은퇴준비를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자식도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금융자산이 든든합니다. 금융자산이 자식을 대신해 효자 노릇 톡톡히 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은퇴준비 하기에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지금이 바로 내 남은 생애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전체 평균 대비
가구주
연령대별 평균
금융자산의
비중



주: 미국은 2016년, 일본은 2014년, 한국은 2017년 기준

자료: 미국FRB, 일본 총무성, 한국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KEB하나은행 은퇴 설계센터 작성



[2장]

행복한 노후를 위한 현명한 은퇴준비

은퇴 이후 어떻게 살까?

물론 은퇴 후 여행도 좋고, 골프 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은퇴 후 30년, 인생의 3분의 1이나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한 은퇴한 운동선수는 방송에서 ‘나도 정말 실컷 쉬었다. 그런데 한 6개월 쉬었더니 질려서 더 이상 못쉬겠더라’고 경험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퍼즐을 맞추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구석에 있는 조각?

정 중앙에 있는 조각?

아니면 땅에 떨어진 조각?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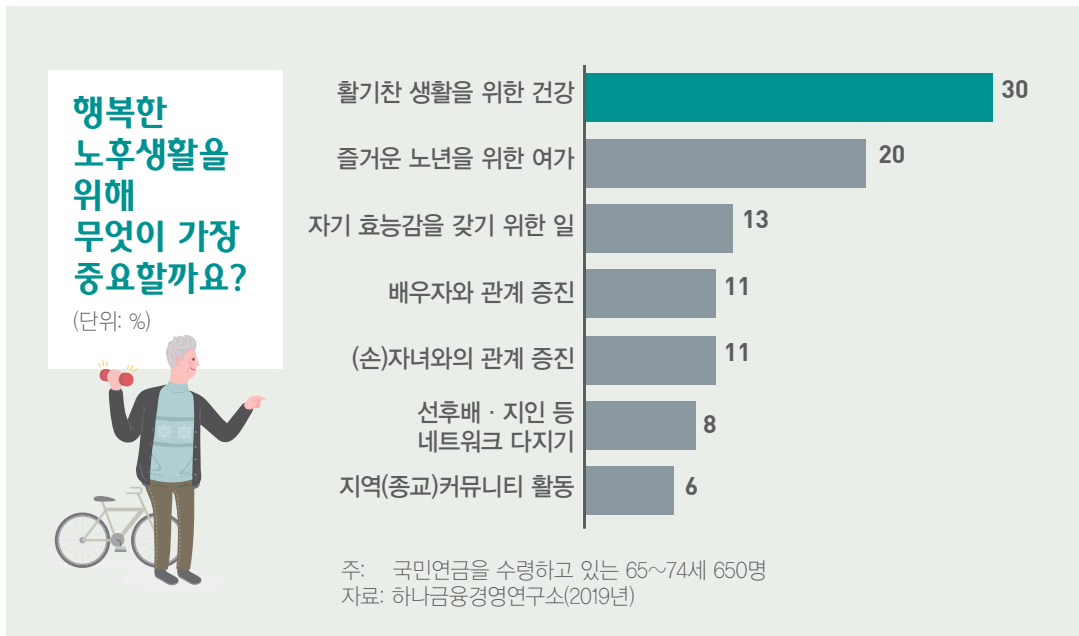
가장 중요한 것은

퍼즐상자 뚜껑에 있는 완성그림입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계획하는

생애설계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그릴 때 이점은 재정적인 준비도 탄탄해 진다는 점입니다. 저축을 늘리거나 투자를 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주기 때문입니다. 평소 사람들은 먼 미래가 없는 것처럼 삽니다. 하지만 나이든 자기 모습을 보는 것처럼 미래와 지금의 나를 연결 짓는 어떤 계기가 생기면 안하던 노후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⁹⁾



그렇다면 은퇴 이후 어떤 삶을 어떻게 계획해야 할까요? 행복한 은퇴생활을 맞이하려면 생활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건강,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마음가짐 같은 심리적 부분도 중요합니다. 은퇴 생활이 생계를 위한 일에서 벗어난 것에 그치면 절반의 성공에 불과합니다. 성공적인 은퇴생활을 그려보려면 지금 하고 있는 일 이외에 인생의 중요한 목표를 한번쯤 세워보는 게 좋습니다. 거기서 은퇴 후 주어질 자유를 활용할 방법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9) Hershfield, Hal E., et al.(2011), Increasing saving behavior through age-progressed renderings of the future self,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48,SPL (2011): S23-S37.

➡ 은퇴 이후 생각해 볼만한 라이프스타일

① 일을 계속하자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한다는 ‘반퇴(半退) 시대’입니다. 은퇴 이후 파트타임 이라도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하는 사람보다 행복하다고 합니다. 일은 생활비를 보충하는 것만이 아니라 은퇴자의 마음가짐을 달라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일은 ‘나는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합니다.

문제해결을 하면서, 새로운 것을 익히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줍니다.

동료들과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 뭐할까’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② 4가지 취미를 찾자

바쁜 은퇴자일수록 행복하다고 합니다. 행복한 은퇴자는 정기적으로 3~4개의 취미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취미 1~2개에만 매달리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덜 행복했습니다. 또한 행복한 은퇴자는 자원봉사, 여행, 골프처럼 밖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하는 취미를 가졌습니다. 낚시, 글쓰기처럼 주로 혼자 하는 취미만 가진 사람은 상대적으로 덜 행복했습니다.¹⁰⁾

③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

은퇴 후 여유시간이 많아지면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하루하루의 감정상태와 직결됩니다. 혼자인 사람보다는 배우자가 있는 은퇴자가 행복했고 특히 부부가 비슷한 시기에 은퇴한 사람이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두 부부 사이가 좋을 때 이야기입니다. 부부 사이가 나쁘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옵니다. 그러므로 은퇴하기 전부터 미리미리 사이 좋은 부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은퇴 후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활동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④ 운동에 시간을 할애하자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운동은 은퇴 후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적절

10) Time(2015,01,12), 5 Secrets to a Happy Retirement

한 운동은 뇌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어 우울증과 치매 발병률을 낮춥니다. 은퇴자가 매주 조깅(혹은 수영이나 자전거)을 하면 그 즉시 사망률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매일 25분에서 30분 정도 걸어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¹¹⁾

은퇴 이후 얼마나 쓸까?

은퇴 이후의 삶을 그려보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은퇴준비 계획을 수립할 차례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노후생활비를 예상해보는 것입니다. 생활비가 정해지면 이것을 토대로 은퇴할 때까지 마련해야 할 자금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런 목표가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금융상품이 있고 뛰어난 자산관리사를 두더라도 내 은퇴준비는 엉뚱한 곳에서 표류할 수 있습니다.

➔ 50세 이상이 생각하는 노후생활비 월 231만원 (2016년 기준)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우리나라 50대 이상 중 고령자들에게 노후에 먹고 사는데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나 될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2016년 조사에 따르면 특별한 질병이 없는 건강한 상태일 때 표준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 적절한 생활비로, 부부일 때 230만9천원, 혼자일 때 145만7천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생활비로는 부부일 때 167만3천원, 혼자일 때 103만원이었습니다.



최소 생활비		적정 생활비	
부부 기준	개인 기준	부부 기준	개인 기준
167만3천원	103만원	230만9천원	145만7천원

자료: 국민연금공단(2017년)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노후 생활비에 대한 여러 사람의 평균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출과 거리가 있을 수 있고 내 개인적인 상황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11) Shana Lynch(2015), Six Reasons to Rethink Aging and Retirement, Stanford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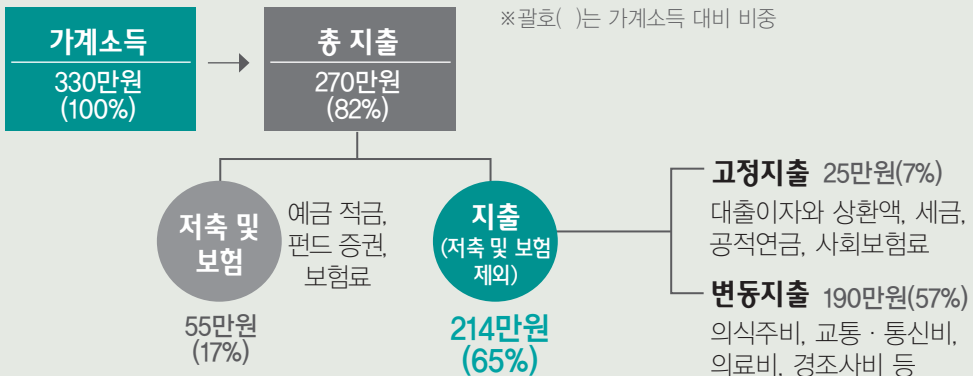
➔ 노후 필요 생활비, 은퇴 전 소득의 65~75%

재무관리에서는 보통 은퇴 전 소득의 65~75%를 노후 생활비로 확보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원이 현재 소득이라면 그 70%인 월 210만원을 노후생활비로 확보하라는 법칙입니다. 그렇게 하면 은퇴한 뒤에도 그 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을 계속하고 있는 60대 이상 가구의 소득과 지출을 살펴봅시다. 저축과 보험료 납입까지 포함한 총 지출액은 소득 대비 82%를 차지합니다. 저축과 보험료를 제외하고 의식주비, 교통·통신비, 사회보험료처럼 당장 생활하는 데 지출한 비용은 소득 대비 65%를 차지했습니다. 만약 이 가구가 당장 은퇴하고 동시에 더 이상 저축하지 않는다면 생활수준을 유지할 위한 지출액은 소득 대비 65%가 될 것입니다.

60대 이상 임금근로자 가구의 소득과 지출(사례)

2016년 기준 가구주가 60대 이상 임금근로자이고 가계소득은 중간계층(3분위: 264~381만원)이며 주택을 보유한 2인 가구의 평균 소득과 지출입니다.



주: 2017 한국가계모형(2016년 기준)에서 가구주연령 60세 이상, 소득 3분위(월 264~381만원), 임금근로자 가구, 가구원 2인, 주택보유인 경우의 결과임.

자료: 2017년 한국FP협회 자료(한국가계모형 프로그램을 활용해 KEB하나은행 은퇴설계센터 작성)

➔ 나만의 노후 생활비 찾기

우리집 생활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나와 내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노후 지출

가계부를 작성해보는 것이 노후 생활비를 예상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평균 노후 생활비나 소득대비 65~75% 법칙을 따르는 것은 비교적 쉽게 은퇴준비를 시작할 수는 있지만, 노후 생활에 대한 나의 바람과 우리 가족의 사정을 모두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노후 생활비는 스스로 정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노후 생활비를 정할 때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까요? 실패학의 창시자인 히타무라 요타로(畑村 洋太郎) 도쿄대 명예교수는 전혀 다른 환경에 직면했을 때, 어떤 새로운 제약이 생겼을 때, 기존에 있었던 것에서 가감하지 말고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설계하라고 충고합니다. 그러면 당초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 잡동사니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모두 버리고 새로 시작해야 군더더기 없는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노후 생활비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은퇴’라는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고 ‘생활비를 절약해야 하는’ 새로운 제약이 있을 때, 지금 쓰는 생활비에 무엇을 줄일까에만 초점을 두면 쓸데 없는 지출을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노후 생활비를 백지부터 다시 그리면 어림짐작 했던 생활비가 구체적으로 눈에 들어오고, 어떤 항목이 진짜 필요한지 손에 잡힐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바라는 라이프 스타일도 생활비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현명하게 소비하기 아이디어

- 옷값 · 오락비 · 용돈은 예산을 잡아 놓고 그 한도 내에서 지출합니다. 이렇게 하면 친구 따라 충동적으로 명품을 산다거나,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는 게 줄어듭니다.
- 고정생활비가 많이 나간다고 생각할 때 그 동안 여럿 들어 둔 보험료만 들여다보기 쉽습니다. 고정비 지출이 많을 때 보험료 말고도 다른 지출에도 문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높은 스마트폰 비용, 잘 보지 않는 TV 약정 같은 게 있습니다.
- 평소보다 한 번씩만 덜 쓰는 ‘해볼 만한 목표’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자동차 주유를 한번 줄이기’, ‘한 달에 한 번 마트 대신 도매시장 가기’ 등이 있겠습니다.
- 온라인 쇼핑을 배웁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인터넷이나 모바일에서 찾으면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퇴할 때 얼마나 있어야 할까?

본격적인 은퇴준비를 시작하려면 은퇴할 때 얼마나 가져야 할지 명확한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장 얼마씩, 얼마 동안 저축할 지 구체적인 실행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지요. 노후기간 30년 이상의 생활비를 마련하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때 목표 은퇴자금은 오랜 준비기간 중 ‘내가 얼마만큼 준비했는가’ 중간점검 할 때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 목표 은퇴자금을 구할 때 고려할 변수, “물가상승률과 예상 수익률”

목표 은퇴자금은 노후생활비를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고려해야 할 게 물가상승률과 은퇴자산의 예상수익률입니다. 먼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으면 은퇴자금을 지나치게 적게 예상하게 됩니다. 물가가 오르면 생활비도 늘어나는 만큼 은퇴자금도 덩달아 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이후 2018년까지 물가상승률이 평균 연 1.9%입니다. 90년대만 해도 물가상승률이 평균 연 5%를 훌쩍 넘었습니다. 앞으로 90년대 상황이 재현되기 어렵다고 해도 물가상승률이 변동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목표 은퇴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고려요소는 은퇴자산의 예상 수익률입니다. 은퇴자금을 현금으로 바꿔서 집에 묻어둘 리는 없겠지요. 은행예금에 둔다면 이자수익이 생길 것이고, 일부를 펀드에 투자한다면 투자수익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을 고려하지 않으면 목표 은퇴자금을 지나치게 크게 설정하게 됩니다. 2010년 이후 2018년 11월까지 정기예금 금리(1~2년 미만)는 평균 연 2.7%이었습니다. 예상 수익률은 은퇴자산의 미래 성장속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성장속도가 빠르면 그만큼 은퇴할 때 필요 자금규모는 작아지게 됩니다.

➡ 당장 은퇴할 때 필요한 은퇴자금 구하기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은퇴자금을 계산하는 게 복잡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은퇴자산을 대략적으로 개산(概算)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비를 은퇴자금으로 바꿔주는 수를 찾아서 곱하는 방법인데요. 이것을 활용하면 한 두 번의 곱하기로 목표 은퇴자금을 손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은퇴자금으로 바꿔주는 수는 ① 노후기간 ② 물가상승률 ③ 은퇴자산 예상 수익률에 따라 아래 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월 생활비
1만원은
은퇴자금으로
얼마?
은퇴자금
배수표



노후기간(년) 실질수익률	20	25	30	35	40
0%	240	300	360	420	480
1%	218	266	311	355	396
2%	198	236	271	302	331
3%	181	212	238	261	280

※실질수익률 = 은퇴자산 예상 수익률 - 물가상승률
매월 초 생활비를 인출하고 나머지 자금은 예상 수익률로 계속 운용한다고 가정(월복리) 제세금과 비용은 고려하지 않음

예를 들어 봅시다. ① 노후기간 30년 ② 물가상승률 연 1.5% ③ 은퇴자산 예상 수익률 연 2.5% 인 경우입니다. 이때 은퇴자산 예상수익률 2.5%에서 물가상승률 1.5%를 뺀 실질수익률은 1%가 됩니다. 이제 배수를 찾아볼까요 위의 <표> 가로항목에서 실질수익률 1%와 세로항목인 노후기간 30년이 교차하는 지점의 승수를 찾으면 '311'입니다. 이 숫자를 예상 노후생활비와 곱하면 바로 필요 은퇴자산 입니다. 국민연금 받을 것을 제하고 노후생활비 월 150만원을 충당해야 한다면 311을 곱한 약 4억6,650만원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① 노후기간 30년 ② 물가상승률 1.5% ③ 은퇴자산 수익률 3%를 예상한다고 해봅시다. 이때 실질수익률은 1.5%(은퇴자산 수익률-물가상승률)입니다. <표>에서 은퇴자금 승수를 찾을 수 없다고요? 이 때 은퇴자금 승수는 실질수익률 1%일 때 311와 2%일 때 271의 중간값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311와 271를 더한 후 2로 나눈 값 293이지요. 생활비 월 150만원을 마련하려 할 때 293를 곱한 4억3,950백만원이 당장 필요한 은퇴자금입니다.

[목표 은퇴자금 계산 ①: 당장 필요한 목표 은퇴자금 구하기(예시)]

한승수(62세)씨는 바로 다음달에 은퇴합니다. 그는 매월 300만원씩 생활비를 쓰려면 당장 얼마 있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을 신청하면 월 150만원씩 받게 되니, 모은 돈으로 월 150만원을 마련하면 됩니다. 그는 자신과 아내 두 사람의 나이와 건강상태를 생각하면 노후가 30년은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는 물가상승률이 연 2%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은퇴자금은 앞으로 연 3% 수익률을 목표로 굴릴 계획입니다. 한승수씨의 필요(목표) 은퇴자산은 얼마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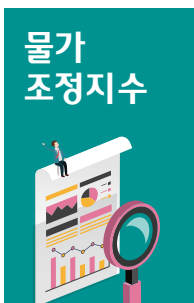
실질수익률 : $1\% = 3\% - 2\%$

목표 은퇴자산 : 4억 6,650만원 = $\frac{150\text{만원}}{\text{노후생활비}} \times \frac{311}{\text{실질수익률 1\% 노후기간 35년 기준}}$

➔ 10년, 20년 뒤 필요한 은퇴자금 구하기

여기까지는 당장 은퇴했을 때 필요 은퇴자산을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은퇴까지 10년이나 남았다면? 앞으로 10년간 물가가 오를 테니 목표 은퇴자산도 늘려 잡아야 합니다. 이럴 때에는 물가조정지수를 활용합니다. 여기서 물가조정지수란 오늘날의 돈의 가치를 미래 돈의 가치로 환산해주는 숫자입니다. 그러니 앞서 구한 은퇴자금에 아래에 있는 물가조정지수를 한번만 더 곱해주면 됩니다.

물가상승률을 연 1.5%로 예상하고 은퇴까지 10년 남은 경우 물가조정지수 표(아래)의 1.16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앞서 계산한 목표 은퇴자산에 곱합니다. 예컨대 목표 은퇴자금 4억6,650만원에 1.16을 곱하면 10년 뒤 5억4,114만원이 되는 셈입니다.



준비기간(년) 물가상승률	5	10	15	20
1.0%	1.05	1.10	1.16	1.22
1.5%	1.08	1.16	1.25	1.35
2.0%	1.10	1.22	1.35	1.49
2.5%	1.13	1.28	1.45	1.64
3.0%	1.16	1.34	1.56	1.81

[목표 은퇴자금 계산 ②: 15년 뒤 목표 은퇴자금 구하기(예시)]

자영업자 노후식(40세)씨는 15년 뒤 65세가 되면 은퇴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혼자 사는 그는 노후기간이 25년 정도고, 노후생활비 2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평균적으로 연 1.5%고, 은퇴한 뒤 자산은 연 3.5% 수익률로 운용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노후식씨가 15년까지 마련해야 할 목표 은퇴자금은 얼마일까요?

실질수익률 : $2\% = 3.5\% - 1.5\%$

목표 은퇴자산 : 5억9,000만원 = $\frac{200\text{만원}}{\text{노후 생활비}} \times \frac{236}{\text{은퇴자금 배수}} \times \frac{1.25}{\text{물가조정지수 은퇴까지 15년 물가상승률 1.5\% 기준}}$

➔ 국민연금이 있으면 은퇴자금 마련부담 줄어든다

월 생활비 250~300만원으로 목표 은퇴자금을 계산해보면 9억, 10억을 훌쩍 넘깁니다. 그런 자금 규모에 은퇴 준비 할 의욕이 뚝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은퇴자금 마련이 만만치 않다는 점은 변함없는 사실이지만, 국민연금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목표 은퇴자금을 계산할 때 국민연금을 고려하려면 예상 노후생활비에서 받을 국민연금 월액을 빼고 계산하면 됩니다. 이미 확보된 생활비니 따로 모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2018년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20년 이상 가입한 경우, 월평균 91만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¹²⁾ 2018년에는 처음으로 국민연금만 월 200만원을 넘게 받는 수급자도 나왔는데요. 서울에 거주하는 이분은 2018년 1월부터 총 200만7천원의 연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¹³⁾ 은퇴준비 할 때 국민연금을 빼놓고 시작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2) 국민연금공단(2019.01), 국민연금 공표통계(2018년 10월 말 기준)

13) 국민연금공단 보도자료(2018.03.28), "2017년 한 해 469만명 국민연금 받아... 전년대비 33만 명 증가"

[3장]

연금제도 200% 활용하자

누구에게나 열린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8년 처음으로 국민연금 월 200만원 받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이 도입 된지 30년 만의 일인데요. 월 200만원은 이자수익으로 치면 연 2% 이율의 예금에 12억원을 넣어둔 셈입니다. 이 분은 국민연금 초기부터 꾸준히 가입했을 뿐만 아니라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춰 연금액을 늘렸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성인(만 18세~60세)이라면 꼭 가입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기초적인 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2,200만 명에 달합니다. 국민연금으로부터 매월 연금을 받은 사람은 약 460만 명에 달하고, 특히 월 1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은 20만 명을 넘습니다.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이지만 탄탄한 노후준비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어느 금융상품에서 찾을 수 없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①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시간이 흘러도 연금의 실제 가치가 줄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작년에 다달이 100만원 씩 국민연금을 받던 A씨는 올 1월부터 1.5% 늘어난 101만5천원을 받습니다. 내년에도 물가상승률 만큼 늘어난 연금을 받게 될 텐데요. 물가상승률이 올해와 같다면 101만5천원에 1.5% 늘어난 103만원을 받게 됩니다.

② 국민연금은 내 평생 받을 뿐만 아니라 상속도 됩니다.

가입자인 내가 사망하면 국민연금이 끊기는 게 아니라 유족연금이 가족에게 지급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자녀의 경우 25세 성인이 될 때까지 연금이 계속 지급됩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없다면 부모님에게도 유족연금 지급순서가 돌아갑니다. 유족연금은 20년 이상 가입한 경우 본인연금의 60%가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의 생계걱정을 덜어주는 안전 장치인 셈입니다.

③ 금융상품으로 생각하면 국민연금은 수익률이 꽤 높습니다.

나는 보험료에 비해 연금을 더 받는 것인데요. 중간 정도 소득을 거두는 경우 낸 보험료의 약 3배를 받게 되니, 수익률로 치면 연 8% 이상 거두는 셈입니다. 거기다 소득이 낮을수록 낸 돈에 비해 연금을 상대적으로 더 받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 때문인데요. 반대로 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낸 돈에 비해 덜 받는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보험료와 연금액을 두고 따져보면 연 5% 이상 수익률을 거두는 것과 같습니다.¹⁴⁾ 이런 장점을 생각해보면 국민연금은 반드시 챙겨야 할 노후준비의 안전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학생이나 전업주부도 가입 가능

최근에는 학생이나 전업주부들이 먼저 나서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노후준비를 위해 스스로 가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임의가입’이라고 합니다.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는 낼 보험료를 스스로 정하는데 최소한 9만원(2019년 4월 ~2020년 3월)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들이 내는 중간 보험료 수준입니다.

14) 최기홍, 한정림(2017),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계층별 수익성 측정, 통계연구(2017), 제 22권 제1호, 44-64

➡ 국민연금 늘려 받는 방법 4가지

노후준비 측면에서 여러 장점을 가진 국민연금, 가능하면 많이 받고 싶은데 국민연금을 더 받겠다고 무턱대고 보험료를 많이 낼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신고된 소득의 9%이고, 매월 낼 수 있는 보험료 상한(※월 43만7,400원, '19년 7월~'20년 6월 기준)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국민연금을 늘리는 방법이란 보통 과거 내지 못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서 가입 기간을 연장한다거나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는 것입니다.

① 과거 못 낸 보험료 납부하기-보험료 추후납부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과거에 실직이나 사업중단으로 형편이 어려워져 보험료를 내지 못했거나(납부예외), 결혼 후 경력이 단절되면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던 경우(적용제외) 나중에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는데요. 이를 추후납부라고 합니다. 추후납부를 하게 되면 그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회복되고 나중에 받을 국민연금도 늘어납니다.

② 돌려받은 국민연금 보험료 반납하기-반환일시금 반납

과거 국민연금보험료를 돌려받았던 분들이 있습니다. 대개 1999년 이전에 직장을 그만두면서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잃은 경우인데요. 당시에는 가입자격 상실 후 1년이 지나면 냈던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은퇴를 앞두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면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하여 공단에 반납하면 예전 가입기간을 되돌릴 수 있는 것이지요.

③ 가입대상이 아니어도 국민연금 가입하기 -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18~60세 이지만 전업주부나 학생처럼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들도 얼마든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합니다. 임의가입 할 때 보험료는 최소 9만원('19년 기준 중위 기준소득월액 100만원 X 9%)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60세가 넘는 경우에도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요. 이를 '임의계속가입'이라고 합니다. 65세가 될 때까지 최장 5년 동안 보험료를 더 낼 수 있는데요. 이

미 노령연금을 청구해서 연금을 받고 있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없으니, 미리미리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장할 지 여부를 결정해 두어야 합니다.

④ 국민연금 나중에 받기 - 연기연금

보험료를 더 내지 않아도 국민연금을 더 받는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는 것인데요, 최장 5년 동안 연금받기를 늦추면 1년마다 7.2%씩 국민연금을 올려줍니다. 받을 연금 중 일부분만 연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기연금을 신청할 때 연금 중 50%에서 100%까지 10% 단위로 연기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단, 연기연금은 한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국민연금 연기 신청을 어떻게 할지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 반납하기 전에 확인할 것들!

첫째, 국민연금 가입상태를 확인합니다. 과거에 못냈던 보험료(추후납부), 돌려받았던 보험료(반환일시금 반납)를 납부하려면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여야 합니다. 다시말해 재취업 했거나 사업을 해서 매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또는 전업주부처럼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임의가입 후 추후납부나 반납이 가능합니다.

둘째, 보험료 추후납부나 반납이 가능한 기간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경우 1999년 4월 이후 미가입 기간에 대해서만 추후납부가 가능합니다. 1999년 4월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전국민으로 확대된 시기로, 전업주부처럼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람은 이 시점 이후부터 추후납부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국민연금 추후납부, 반환일시금 반납 둘 다 가능하다면 어떤 게 유리한지 따져봅니다. 대체로 반환일시금 반납이 국민연금 늘리기에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반납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70%로 높았던 1999년 이전의 가입기간을 되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대신 보험료와 같이 내야 할 누적이자도 커지는 만큼 납부할 국민연금 보험료와 받을 연금액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월급도 받고 은퇴준비도 한다, DB·DC형 퇴직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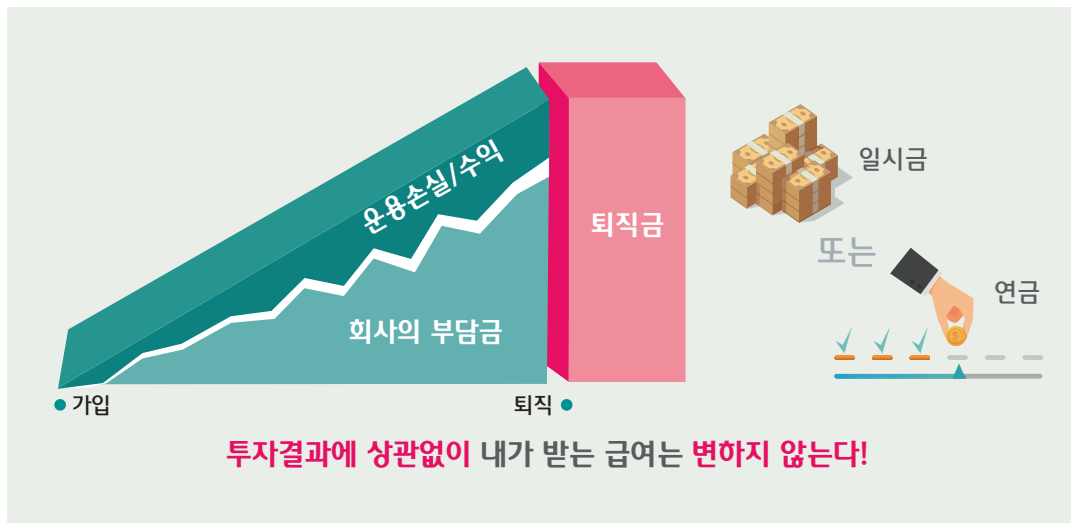
“아직 은퇴준비 할 때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투자로 자산을 늘려야지, 내 집 마련 해야지, 은퇴준비보다 급한 게 산더미예요.”

‘왜 은퇴준비를 안하느냐’라는 질문에 20~30대 젊은 직장인들이 흔히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노후 생활비 월 100만원을 만들려면 족히 3억원 정도는 필요한 상황에서 평범한 사람이 그 큰 돈을 은퇴 전 몇 년 만에 마련하기 쉽지 않습니다. 결국 젊었을 때부터 조금씩 은퇴자금을 저축하는 게 필수인데, 바쁘고 돈 쓸 데도 많은 젊은 직장인들이 30~40년 뒤를 생각해 따로 돈을 저축하기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다니기만 하면 젊었을 때부터 자동으로 차곡차곡 쌓이는 은퇴자금이 있습니다. 바로 퇴직연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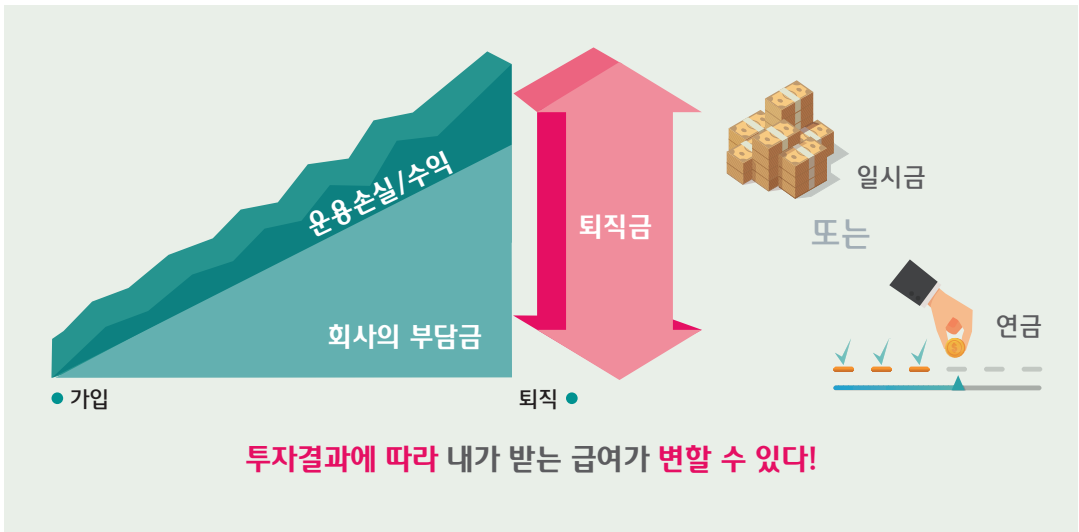
➔ 퇴직할 때 회사가 주는 돈이 정해진 DB형



회사에서 가입하는 퇴직연금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DB형(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이 있는데요. 단어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퇴직할 때 받을 돈(퇴직급여)이 미리 정해진 방식을 말합

니다.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회사는 최소한 “30일분의 평균임금 X 근속연수”이상을 퇴사하는 임직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하기 직전 월급이 300만원이었고, 회사를 5년 다녔다면 DB형 퇴직급여로 1,500만원(300만원X5년)을 받게 됩니다.

➔ 회사에서 넣어준 돈 내 뜻대로 굴리는 DC형



DC형(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은 회사가 매년 내 앞의 계좌에 돈을 넣어주고 내가 그 돈을 직접 운용하다가 나중에 퇴직할 때 불입원금과 수익을 받아가는 구조입니다. 회사는 최소한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약속한 금액을 내 계좌에 넣어주어야 합니다. DC형 가입자는 정기예금을 포함해서 다양한 국내외 퇴직연금 펀드를 활용하여 회사에서 넣어준 자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DC형에 가입한다고 자동으로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DC형은 적금 같은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정기예금과 국내외 펀드와 같이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은 주머니(계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DC형에 가입하면 어떤 금융상품을 얼마나 담을 지 정해야 합니다. 내 돈을 굴릴 금융상품과 각 상품에 얼마나 배분할 지 결정하는 것인데, 이를 ‘운용지시’라고 합니다. DC형 계좌에 돈만 넣고 아무런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미운용자산으로 남아 이자가 거의 붙지 않거나 만기가 짧은 금리형 상품으로 운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더 높은 이자를 받거나 투자수익을 거둘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DC형에 가입할 때 운용지시까지 꼭 마무리 하는 게 좋습니다.

DC형에 투자할 때 주목할만한 상품, TDF와 로보어드바이저

투자는 하고 싶으나 투자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 이런 걱정을 덜어주는 상품이 있는데요. 바로 TDF(Target Date Fund, 타겟데이트펀드)와 로보어드바이저(Robo Advisor)입니다.

먼저 TDF는 펀드 스스로 자산배분을 실행하는 상품입니다. 이름처럼 목표 은퇴시점(예: 2040년, 2045년)이 가까워질수록 주식과 같은 성장형 자산의 비중을 줄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TDF는 국내와 해외 주식·채권·부동산(특별자산) 등 여러 펀드에 분산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로보어드바이저(Robo Advisor)는 컴퓨터 알고리즘(Algorithms)을 활용하여 자동화된 투자자문 또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누구에게나 개인 맞춤형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특징인데, 로보어드바이저 역시 퇴직연금 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절세혜택과 노후준비를 동시에 IRP(2019년 1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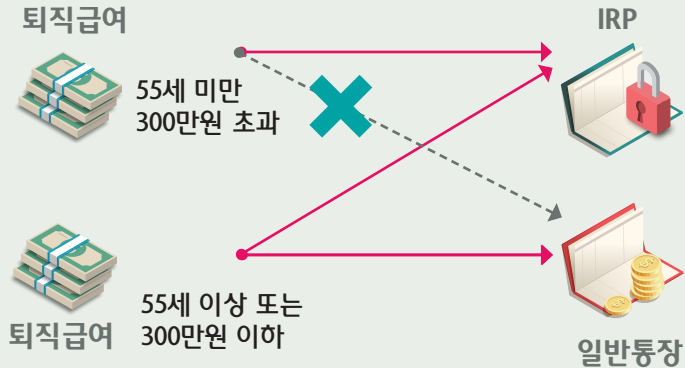
IRP(개인형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lan)는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넣고 나중에 인출할 때까지 계속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DB형이나 DC형에서 나온 퇴직금이 300만원을 넘기면 반드시 IRP로 옮겨야 합니다. 단 퇴직할 때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이면 IRP로 이전하지 않고 일반 계좌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계좌로 받은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공제합니다. 반면 퇴직금이 IRP로 옮겨지면 나중에 계좌에서 실제 꺼내 쓸 때까지 세금납부가 미뤄집니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법정사유를 제외하고 IRP에 퇴직급여를 이전합니다

의무이전 예외 사유

-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 퇴직급여가 300만원(세전) 이하인 경우



➔ 내 돈을 더 넣어서 굴릴 수 있는 IRP

IRP는 퇴직금뿐만 아니라 내 돈을 따로 더 넣어서 굴릴 수 있습니다. 매년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고 넣은 돈에 대해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급여소득이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면 최대 115만5천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에 공제율 16.5%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이 5,500만원(종합소득일 경우 4,000만원)을 넘으면 공제율은 조금 낮아져 13.2%가 되고, 최대 92만4천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IRP에서 55세 이후 ‘연금수령’ 하면 세금절감

IRP는 나중에 찾아 쓸 때에도 절세혜택이 있습니다. 55세 이후에 ‘연금수령’ 하면 받은 금액에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연금’이란 연금보험에 가입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출액이 ‘연금수령한도’ 기준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다시 말해 쌓인 돈을 당장 인출하기 보다 대략 10년(2013년 3월 1일 이전 5년)에 걸쳐 인출하거나 또는 그 이후에 꺼내 쓰면 ‘연금수령’으로 인정됩니다.

$$\text{연금수령한도} = \frac{\text{IRP계좌 평가액}^*}{(\text{11년}^{**} - \text{연금수령연차})} \times 120\%$$

*연금개시 신청 첫해에는 신청일 기준, 이듬해부터는 매년 1월 1일 평가액을 적용합니다.

**가입일이 2013년 3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11년을 6년으로 대체합니다.

➡ 연금수령 하면 세금을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

IRP에 쌓인 돈이 어디에서 왔느냐에 따라 절감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첫째, IRP에 있는 돈이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인 경우입니다. 이 때는 퇴직할 때 냈어야 할 퇴직소득세의 70%만 원천징수 됩니다. 달리 말하면 세금을 30% 할인 받는 셈입니다. 둘째, 내가 불입해서 세액공제 받은 부분과 운용수익입니다. 이를 연금으로 꺼내 쓰면 3.3~5.5%의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가입자의 연령이 55세에서 69세까지 5.5%, 70세부터 79세까지는 4.4%, 80세 이후부터는 3.3% 세율이 적용되고, 종신연금에 가입해 연금으로 받을 때에는 나이에 상관 없이 4.4%가 원천징수 됩니다. 단, 이 부분이 연간 1,200만원(월 100만원)이하이면 인출할 때 때는 연금소득세(3.3~5.5%)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1,200만원을 넘어서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므로 추후 다른 소득과 합쳐 그 해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셋째, 내가 따로 불입한 돈이지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입니다. 이 부분은 어느 때 인출하건 아무런 세금을 메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돈의 꼬리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니 IRP에서 돈을 꺼내 쓸 때에는 세금이 적게 붙는 순서에 따라 인출됩니다. 가장 먼저 ① 세액공제 받지 않는 원금(비과세)이 인출되고, 다음으로 ② 퇴직금 부분(퇴직소득세의 70%), ③ 세액공제 받은 원금(연금소득세 3.3~5.5%), ④ 운용수익(연금소득세 3.3~5.5%) 순으로 인출됩니다.

종합해보면 IRP는 퇴직금을 이전할 때, 내 돈을 넣을 때, 연금으로 꺼내 쓸 때마다 3번의 절세혜택이 있습니다. IRP를 잘 활용하면 노후준비 하면서 절세혜택도 받으니 도랑치고 가재 잡는 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IRP에 있는 돈 일시금으로 꺼내 쓰면?

IRP로 이전된 돈, 꼭 55세 이후 연금수령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55세 이전이라도 IRP에서 목돈을 인출하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연금수령일 때보다 세금이 늘어나니 가급적이면 55세 이후에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게 좋습니다.

먼저 퇴직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목돈으로 꺼내 쓰면 종전에 냈어야 할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연금일 때 30% 세금할인을 받지 못하는 셈입니다. 세액공제 받은 불입원금과 운용수익 부분은 16.5% 기타소득세를 냅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을 인출한다면 495만원을 떼고 2,505만원만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가족이 아프다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는 목돈으로 꺼내도 연금소득세(3.3~5.5%)를 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① 가입자 본인이 사망한 때, ② 가입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③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때 등이 있습니다.

스스로 준비하는

연금저축(2019년 1월 기준)

노후준비 하면서 절세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저축인데요.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매년 불입금에 대해 세액공제

를 받고 나중에 연금으로 인출할 때에는 3.3~5.5% 연금소득세를 내는 절세혜택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불입한 돈은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다만 연소득이 높은 경우 세액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으로 줄어드는데요. 근로소득이 1억2천만원을 넘거나 종합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연금저축 공제율은 IRP와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근로소득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이하인 경우 공제율은 16.5%, 근로소득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는 13.2%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연금저축과 IRP에 모두 가입한 경우 두 계좌에 넣은 돈을 합쳐 최대 7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400만원, IRP에 700만원씩 총 1,100만원을 넣어도 7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세액공제 한도만 채우려면 넣은 돈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 먼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을 불입하고, IRP에 300만원을 넣어 총 700만원을 맞출 수 있습니다. 또는 연금저축 불입액을 줄이는 대신 IRP에 넣는 돈을 늘릴 수도 있는데요. 연금저축에는 불입하지 않고 700만원 모두 IRP에 불입해도 됩니다.

불입만 하고 세액공제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

지난해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불입했는데 이중 200만원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해봅시다. 이때에는 올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에 공제 못 받은 불입금 200만원을 다시 세액공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세액공제 이월신청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금융회사에 신청서와 함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세무관서에서 발급받은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금융회사는 200만원을 올해 낸 것으로 수정된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이것을 증빙으로 하여 올해 세액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세액공제 못 받은 연금저축 불입금은 당장 계좌에서 인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돈은 연금저축 계좌에서 인출할 때 따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붙은 운용수익은 세금을 내는데요. 운용수익을 55세 이전에 꺼내 쓰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고, 55세 이후 연금수령 하면 3.3~5.5%의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 연금저축에서도 연금수령하면 IRP와 똑같은 세제 혜택이

연금저축에서 인출할 때 적용되는 세제는 퇴직연금 IRP와 똑같습니다. 55세 이전에 인출하면 꺼낸 돈의 16.5%를 기타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55세 이후에 연금수령 하면 3.3~5.5%의 연금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연금저축의 경우 55세가 넘었더라도 연금수령을 하려면 적립기간

이 최소 5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적립한 기간이 5년 미만이어도 연금수령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의 세 가지, 보험·신탁·펀드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은 보험·신탁·펀드계좌, 이렇게 3가지 금융상품으로 나뉩니다. 세제혜택이라는 틀은 같지만 상품이 다른 만큼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① 평생 연금 받는 게 가능한 연금저축 보험

연금저축보험은 매월 각 보험사가 정하는 공시이율로 부리되는 변동금리형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시이율은 보험사의 자산운용 이익에 시중금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하는데, 보험사가 무작정 공시이율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바로 공시이율이 지나치게 추락하는 것을 막는 최저보증이율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최저보증이율 역시 보험사마다, 가입한 때(보험상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 받기

생명보험사에서 만든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했다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평생 지급되는 종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신연금 이외에도 10년·15년·20년 이렇게 가입자가 정한 기간 동안 연금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를 확정연금이라고 합니다. 종신연금과 확정연금 이렇게 반반씩 나누어 받고 싶다면? 상품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종신연금과 확정연金的 지급유형을 비율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연금저축 중 60%는 종신연금, 나머지 40%는 확정연금으로 10년간 받겠다. 이렇게 가입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 안정적인 운용을 추구하는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신탁은 은행이 운용한다고 하니 흔히 이자가 붙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신탁은 자산의 운용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상품입니다. 다만 연금저축신탁은 가입자가 납입한 원금이 보장되는 만큼 안정적인 운용을 추구합니다. 주로 국공채, 통화안정증권이나 금융채처럼 신용도가 매우 높은 채권 중심으로 운용하여 시중금리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이후로 연금저축신탁에 새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입한 분들은 신탁에 돈을 계속 불입하는 등 연금저축신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신탁에서 연금수령 신청하기

연금저축신탁에서 연금을 꺼내 쓸 때에는 일반적으로 가입자가 연금수령기간과 지급주기, 이체받을 계좌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지급개시를 신청할 때 신탁자산이 5,000만원 이었고 지급기간은 10년, 지급주기를 3개월로 정했다고 해봅시다. 이때 처음 받는 연금은 신탁자산을 40(회)로 나눈 125만원(세전)입니다. 다음부터는 지급이 이루어질 때 신탁자산 평가액을 남은 지급횟수로 나눈 돈이 계좌로 이체됩니다. 3개월 뒤 신탁자산이 4,912만원으로 평가됐다면 이를 39(남은 지급횟수)로 나눈 126만원(세전)이 됩니다. 연금저축신탁으로 매번 받는 연금은 신탁자산의 운용수익이 누적되면서 달라지게 됩니다.

③ 내 뜻대로 투자하는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펀드의 두드러진 특징은 운용대상,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는 펀드가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만기가 짧은 채권에 투자하는 MMF부터, 글로벌 4차산업 펀드처럼 전 세계 흩어져 있는 특정한 산업주식에 투자하는 펀드까지, 운용대상이 매우 다양합니다. 가입자는 여러가지 연금저축펀드 가운데 한 개 이상 선택해서 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투자중인 펀드를 다른 펀드로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계좌에서 인출하기

연금저축펀드계좌에서 연금을 받을 때는 보통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연금수령기간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수령기간과 주기를 정하면 남은 지급횟수에 따라 펀드계좌에 잔액을 분할해서 주는 방식입니다. 이때 수령기간이 정해진 대신 매번 받는 연금액은 누적된 운용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대로 받을 연금액을 정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를 정액인출식이라고 하는데요. 가입자는 연금액과 지급주기(월/분기/반기/년)를 정하면 펀드잔액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 지급됩니다. 그 결과 정액인출식에서는 매번 고정액을 받는 대신 펀드운용 성과에 따라 연금 받는 기간이 처음 생각보다 연장될 수도,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계좌에서 인출하려면 그만큼 펀드를 팔아서 현금화 해야 할 텐데요. 가입자가 펀드 여러 개로 운용 중이라면 어떤 펀드부터 매각할지 매각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MMF처럼 펀드가치가 가장 안정적인 것부터 매각하는 게 일반적이는데요. 주식형 펀드는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장기투자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운용중인 펀드를 모두 조금씩 매각해서 펀드의 투자비중이 연금지급 이전과 같이 유지되도록 할 수도 있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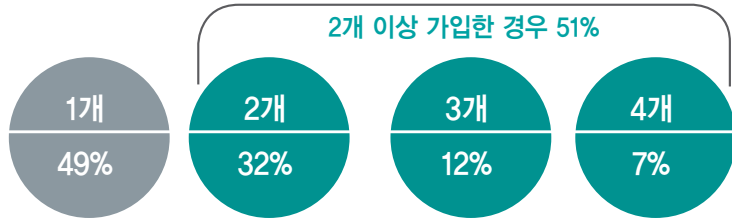
니다. 이렇게 되면 현금흐름에 따라 펀드 투자포트폴리오가 단기간에 변화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 저축상품 비교	구분	보험	신탁	펀드계좌
	판매 금융회사	보험 · 은행 · 증권	은행	보험 · 은행 · 증권
	납입방식	정기납입	자유적립식	자유적립식
	운용방법	매월 공시이율로 부리 (최저보증이율)	금융채 · 국공채 · 회사채 등으로 운용 (안정적 운용 추구)	MMF부터 해외주식형 펀드까지 다양한 펀드로 운용
	원금보장여부	보장	보장	없음
	예금보호	보호	보호	비보호
	연금수령 방식	종신형 기간확정형	기간확정형	금액확정형 기간확정형

개인연금 가입자, 얼마나 왜 가입했나?

KEB하나은행 은퇴설계센터와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지난 2018년 5월 개인연금에 가입한 18~54세 1,000명에게 몇 가지 상품에 가입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개인연금이란 연금저축(신탁 · 보험 · 펀드), IRP뿐만 아니라 비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보험과 변액연금까지 포함한 건데요. 설문 결과 응답자 중 절반(51%)은 개인연금을 2가지 이상 가입했고, 4가지 이상이나 가입한 사람도 10명 중 1명(7%)에 가까웠습니다. 개인연금을 여러개 가입한 사람들은 세제혜택을 고려해서 상품이나 납입금액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과 비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보험처럼, 세제혜택이 서로 다른 2개 상품에 가입하는 식이지요.

가입한 개인연금 개수별 응답자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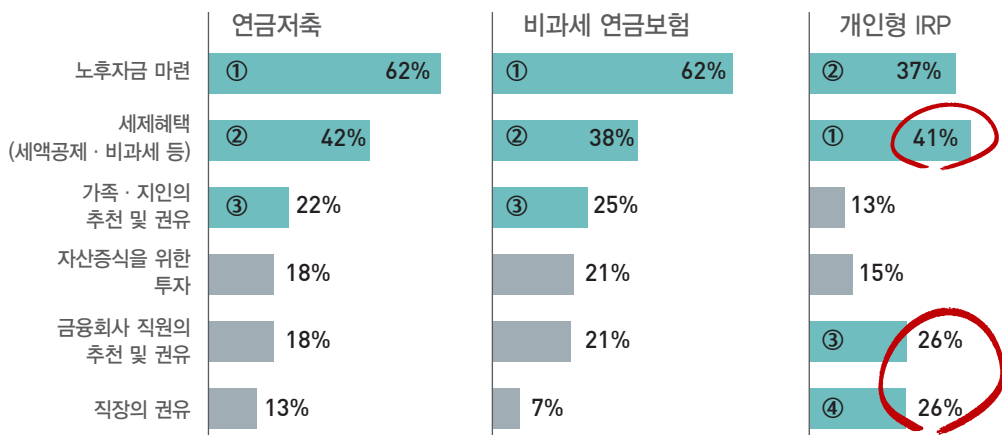


대상: 연금저축(보험 · 신탁 · 펀드), IRP, 비과세 혜택이 있는 변액연금 또는 일반연금보험 가입자, 1000명

개인연금에 왜 가입했느냐는 질문에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요. 그 다음으로 ‘세제혜택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의 추천이 있어서’라는 이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IRP는 좀 달랐습니다. 노후자금 마련 보다 세제혜택이 있어서 가입했다는 의견이 더 많았고, 가족이나 지인보다 금융회사 직원이나 회사의 권유로 가입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직까지 다른 개인연금에 비해 IRP가 노후자금 마련에 필요한 상품이라는 점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2017년부터 IRP 가입대상이 자영업자와 공무원 · 교직원 · 군인까지 확대됐고, IRP에 가입해야 세액공제도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IRP를 은퇴준비 수단으로 잘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개인연금 종류별 가입한 이유(1+2순위)



대상: 연금저축(보험 · 신탁 · 펀드), IRP, 비과세 혜택이 있는 변액연금 또는 일반연금보험 가입자, 1000명

소기업가를 위한 퇴직금, 노란우산공제(2019년 1월 기준)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이외에 은퇴준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바로 노란우산 공제입니다.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가나 소상공인이 사업을 접거나(폐업) 사망한 때, 고령자가 되어서 생활안정이 필요할 때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소기업·소상공 대표자를 위한 퇴직금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누가 가입할 수 있나?

노란우산공제는 원칙적으로 사업체 연 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표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가라고 해서 제약 없이 누구나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영리법인 대표, 유흥주점, 무도장이나 도박장과 같은 가입제한 업종 대표자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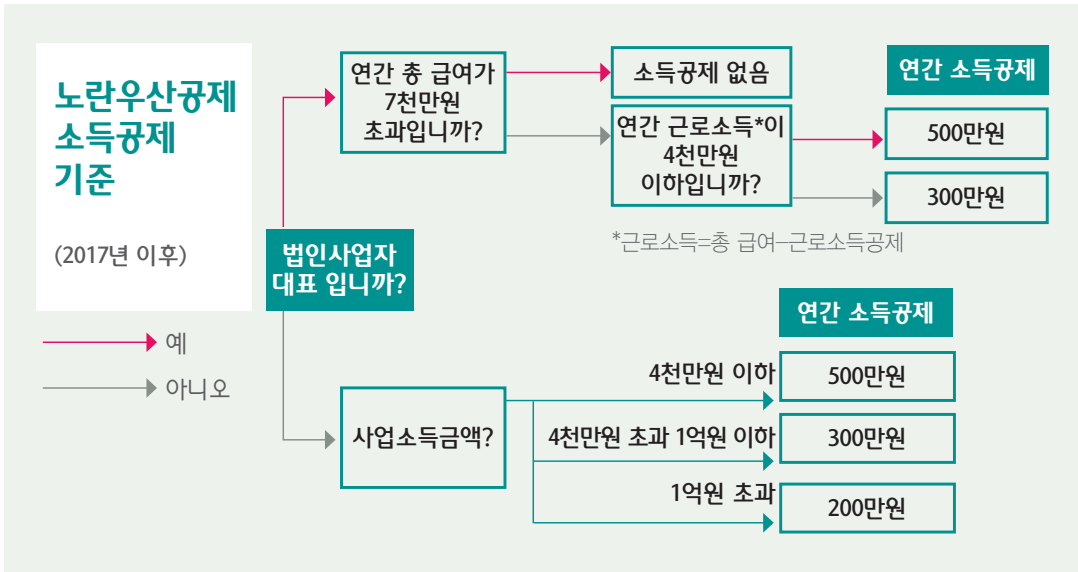
➡ 최대 1,200만원까지 납입 가능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도

노란우산공제는 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연간 1,200만원을 한도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연간 납부한 돈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보면 사업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500만원까지,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이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됩니다. 소득이 1억원을 넘기면 2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납부할 소득세를 계산할 때 그 해 벌어들인 소득에서 공제액을 빼준다는 의미로, 소득규모에 따라 절세효과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도매업을 운영하는 박 사장은 올해 사업소득이 4,000만원이었고, 연간 500만원을 노란우산공제에 납부했습니다. 이때 박 사장의 과세대상 소득은 공제액 500만원을 제한 3,500만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500만원에 16.5%('18년 1,200만원~4,600만원 소득구간의 종합소득세율)인 825,000원 만큼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부금은 매 분기마다 달라지는 기준이율을 바탕으로 부리됩니다. 결국 노

란우산공제는 3개월 변동금리 상품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2015년 이후 3년간 기준이율을 살펴보면 연 2.1%~2.4% 수준입니다. 기준이율 추이는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제금 언제 받나? 폐업·사망·퇴임·고령자가 된 때

노란우산공제에서 지급하는 공제금은 지급하는 사유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폐업·사망 공제금입니다. 사업을 완전히 접고 폐업한 때, 가입자인 소상공인이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때 받는 공제금은 납입한 돈에 기준이율보다 조금 높은 이자로 부리한 금액입니다. 퇴임·노령 공제금은 사업체가 계속 운영되는 상황에서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 대표에서 물러나게 되거나 60세 이상 고령자가 된 때 지급합니다. 이 때에는 기준이율로 부리된 적립금을 지급하는데, 만 60세가 넘고 공제금이 1천만원을 넘기면 연금처럼 나누어 받을 수도 있습니다. 5년부터 최장 20년까지 나누어 받아 노후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유		공제금
폐업	개인사업자의 폐업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폐업 · 사망 공제금 공제금 적용이율: 기준이율 + 연 0.05~0.3% (납입기간에 따라 달라짐)
사망	가입자의 사망	
퇴임	법인대표의 질병/ 부상으로인한 퇴임	퇴임 · 노령 공제금 적용이율: 기준이율 ※ 연금처럼 5~20년간 나누어 받기도 가능
노령	가입자가 만 60세이고, 공제금을 청구한 경우	

자료: 2019년 1월 기준 노란우산공제 약관을 참조로 KEB하나은행 은퇴설계센터 작성

내 집, 내 땅에서 월급 받기

주택연금, 농지연금

“가진 거라고는 집 한 채가 전부인데 어떻게 살지? 이것 참 큰일났다.”

이 때 주택연금을 확인했다면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 집 한 채라도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주택연금이란 나이 드신 분들이 자기 집에 살면서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도록 하는 국가 보증 제도입니다. 모아놓은 금융자산으로 생활비를 만들기에 턱없이 부족하거나 소득원이 불안정한 분들이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60세 이상일 때 가입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9억원 이하 주택 하나를 소유한 경우가 해당되지만, 다주택자라도 주택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고,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주택 하나를 팔면 가입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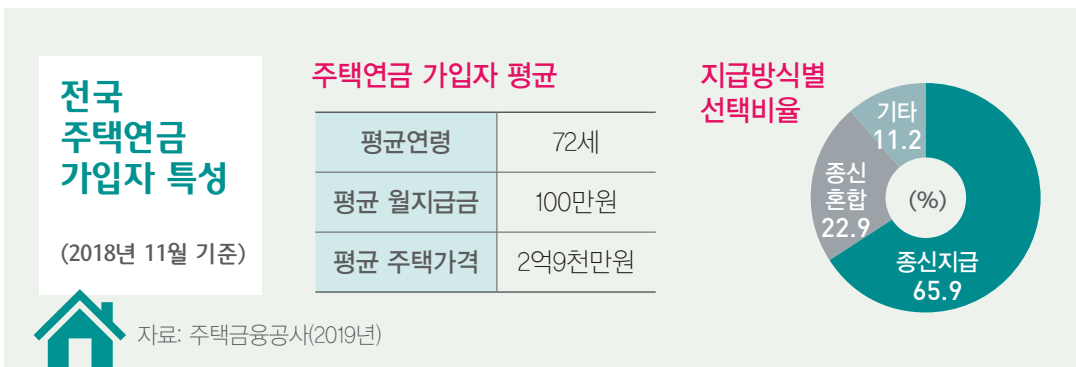
➡ 내 집으로 연금을 받다가 남으면 상속도 가능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부부 모두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남은 주택자산을 자녀에게 남길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받는 분들이 모두 돌아가시다면 살던 주택을 처분해 그간 받은

연금과 이자를 상환합니다. 이때 주택 처분액이 그간 연금수령액과 이자를 상환하고도 남으면 그 돈이 자녀에게 돌아가게 갑니다. 반대로 처분액이 대출원리금보다 적을 때에는 자녀에게 잔여금 상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택 처분액이 넘치면 자녀에게 남기고 모자랄 땐 부담 지우지 않으니 주택연금이란 노후 생활비 문제도 해결하면서 자식의 짐까지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 주택연금 평균적으로 얼마 받나?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전국적으로 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가입자의 평균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가입자 연령은 부부 중 연소자 기준으로 72세이고, 주택가격은 2억 9천만원, 월지급금은 평균 1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으로 사람 사는 맛을 찾다(조태식씨 체험수기에서)

큰돈은 아니었으나 한 달 한 달 돈이 나오니 연금을 받기 전과는 마음가짐과 생각이 많이 달라지더군요. 평생 보장되는 연금이 있으니 적게나마 준비해둔 노후 자금을 써도 걱정할 일이 거의 없어지고 아침에 나가는 운동도 더 재미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인지 저번에는 전국대회에서 상도 탔습니다. 주택연금 덕에 이제는 친구와 돌아가며 밥도 사고 탁주도 주거니 받거니 하며 지내니 이런 게 사람 사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자료: 주택금융공사(2017년), 자식에게 들려주는 행복한 노후이야기

➔ 내 땅에서 농사도 짓고 연금도 받는 농지연금

농지연금이란 농사짓고 있는 땅을 담보로 매월 생활자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만 65세가 넘었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 되는 농민이라면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하신 분과 배우자가 모두 돌아가신 후 받은 연금 총액이 농지가격을 넘어도 자녀(상속인)에게 더 청구하지 않고, 농지가격이 더 크면 남은 돈을 자녀에게 돌려준다는 점이 주택연금과 비슷합니다. 여기에 가입 이후에도 그 땅에 직접 농사를 짓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서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고, 농지가격이 6억원 이하 일 때에는 재산세도 면제된다는 혜택은 농지연금만의 특징입니다.

2011년부터 시작된 농지연금은 2018년 7년 만에 가입자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평균 수급액은 월 92만원 정도입니다. 농지연금포탈 사이트(fplove.or.kr)에서 농지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확인 과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가진 땅으로 농지연금액이 얼마나 될지 연금유형에 따라 계산도 가능 하고 방문이나 전화상담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은퇴준비, 절세금융상품도 다시 보자(2019년 1월 기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은퇴 후 목돈 마련도 거뜰”

‘절세’는 잘만 챙기면 아무런 리스크 없이 얻을 수 있는 ‘추가소득’입니다. 연금제도 이외에 이런 절세금융상품을 활용하면 은퇴 후 요긴하게 쓰일 목돈을 만들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입니다.

ISA는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ELS)까지 여러 금융상품을 계좌 하나에 담아 포트폴리오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가 원하는 금융상품만 선택하여 운용하거나, 금융회사에 일임하여 운용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ISA는 만기 때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손실을 뺀 순소득에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일반 계좌에서 같은 금융상품을 운용할 때보다 절세혜택이 큼니다. 긴급히 자금이 필요한 경우 불입한 돈(납입원금) 내에서 불이익 없이 중도인출도 가능합니다.

ISA는 가입대상별로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 청년형으로 나뉩니다. 먼저 일반형은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순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서

민형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 농어민형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가 대상인데, 순소득 400만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형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자 가운데 연령이 만 15~29세 이하일 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순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는 청년형은 일반형과 달리 의무가입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는 게 특징입니다.

비과세 한도를 넘은 순소득은 9.9%(지방소득세 포함) 세금을 내는 것으로 과세가 마무리 됩니다(분리과세). 그러나 전체 수익에 대해 매년 15.4% 세금을 내야 하는 일반계좌에 비하면 ISA의 절세혜택이 쏠쏠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ISA는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세제혜택 제도인 만큼 2021년 말 까지만 가입 가능하며, 직전 연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할 수 없습니다.

ISA의 주요 내용 요약

구분	일반형	서민·농어민형	청년형
가입대상	• 근로소득자 • 사업소득자	•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 종합소득(근로·사업 소득 제외) 3,500만원 이하 농어민	일반형 요건 충족자 중 • 연령이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 (병역이행기간 차감한 연령) • 자산형성지원금 수령자
	당해 연도 또는 직전 3개년도 가운데 과세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직전 연도 소득이 상기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도 또는 직전 3개 연도 소득 중 과세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직전 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전금융기관 1인 1계좌 가입 가능		
비과세 한도	순소득 200만원	순소득 400만원	순소득 200만원
가입(의무)기간*	5년(5년)	5년(3년)	
납입한도	연간 2천만원(총 1억원)		

*괄호()는 의무가입기간입니다. 의무가입기간 이내에도 ISA 중도해지가 가능하지만 이때에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일반과세(15.4%)되어,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소득은 가입(의무)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순소득금액입니다.

[유의하실 사항]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금융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별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이 계좌 내 금융투자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ISA내 예금, 다른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 당사는 이 계좌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중도해지시 일반과세(15.4%)로 과세되는 등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서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 및 세부 운용지시대로 운용하며 가입유형 및 자산유형에 따른 신탁보수가 발생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또는 KEB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영업점 및 콜센터(1599-14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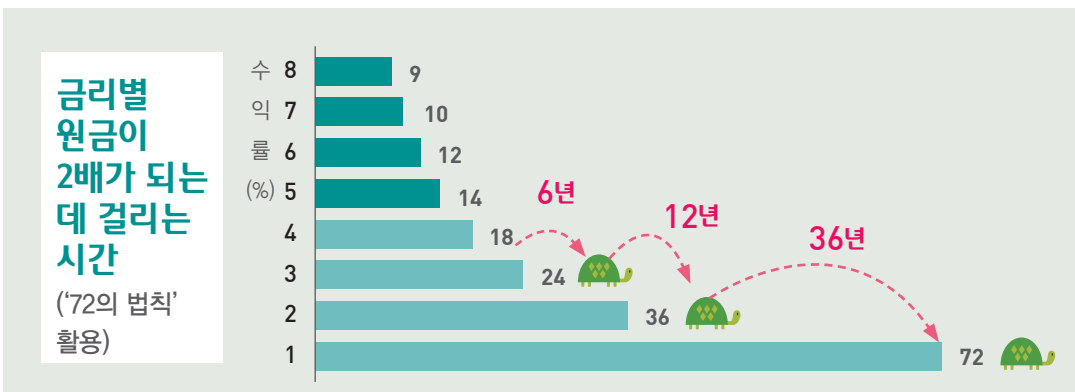


[4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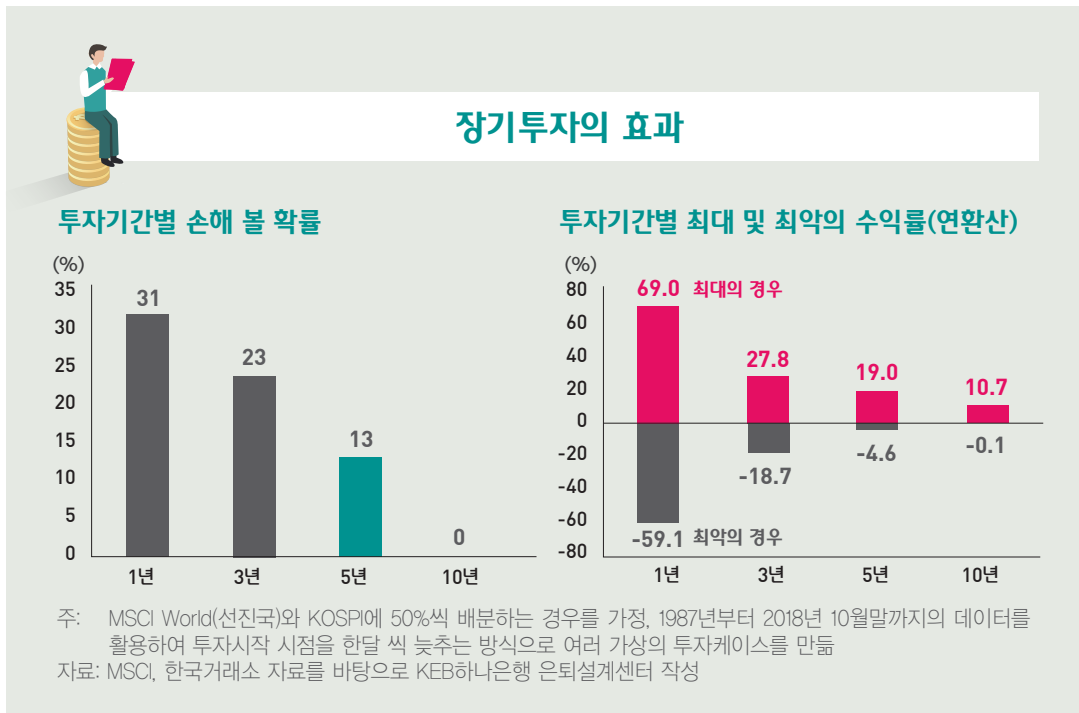
온퇴준비 이렇게 하자

온퇴자산관리 투자로 하자

‘72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자가 복리로 붙어날 때 처음 넣은 돈이 2배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어림으로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이자가 연 8%일 때 자산이 2배가 되는 시간은 72를 8로 나눈 9년이라는 겁니다. 이 72의 법칙은 어림셈이지만 자산이 붙어나는 ‘복리의 힘’을 알아보기엔 충분합니다. 이 ‘72의 법칙’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익률이 연 3% 아래로 떨어지면 복리의 힘이 맥없이 빠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매우 급격하게 힘을 잃어갑니다. 수익률이 3%일 때 자산이 2배가 되는 시간은 24년으로, 연 4%일 때(18년)보다 6년이나 연장됩니다. 연 2%일 때는 36년으로 3%일 때보다 12년 더 늘어나고, 1%가 되면 자산이 2배가 되는 데 72년이나 걸립니다.



복리의 힘을 되찾아 자산을 늘려보겠다는 적어도 연 4~5% 수익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이자수익만 바라봐서는 이것을 달성하기 어렵지요. 결국 자산증식을 통해 은퇴자산을 마련하려면 투자가 필수인 시대입니다.



➡ 장기투자 해야 하는 이유

장기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식과 같은 투자자산은 운용기간이 길수록 손해 볼 가능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의 과거 성과자료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장기투자 효과를 한번 알아볼까요? 미국, 서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 주식과 국내 KOSPI에 절반씩 투자한다고 해봅시다. 1987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30여년간 과거 시장자료를 바탕으로 1년 투자했을 때와 3년, 5년, 10년 투자했을 때 수익률을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1년간 투자했을 때 수익률은 평균 5.4%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실을 보는 경우가 약 3건 중 1건(31%)이었고 <그림>처럼 최악의 경우 손실이 -59%나 됩니다. 그러나 투자기간을 늘릴수록

손실을 보는 경우가 줄었습니다. 투자기간이 3년일 때 전체 가운데 손실을 본 경우가 23%로 줄었고, 5년일 때 13%, 10년일 때에는 단 한번만 미미한(연 0.1%)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수익률(연환산)이 최고일 때와 최악일 때 차이도 줄었습니다. 장기투자 하면 대박이 나는 경우는 없지만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경우도 함께 줄어드는 것입니다.

→ 글로벌 분산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는 투자격언이 있지요. 한 두 개 기업이 아니라 여러 기업에 분산투자 하면 어느 한 회사의 영업성고가 갑자기 하락하거나 사고가 나서 주가가 추락한 때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에 커다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투자 리스크가 분산되면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해져 장기적으로 투자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분산투자의 원칙은 개별 기업이나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지역)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요즘은 해외펀드를 활용해서 개인도 해외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하는 만큼 글로벌 분산투자가 당연해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투자기회를 가지기 위해서라도 글로벌 분산투자에 주목해야 합니다. 국내투자에만 머무르면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글로벌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애플(테크놀로지, 미국), 아마존(인터넷 유통, 미국), 도요타(자동차, 일본)처럼 각 산업별 초우량 기업에 투자 하려면 투자영역을 해외까지 넓혀야 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전체 글로벌 주식시장의 2%를 차지할 뿐입니다. 나머지 98%의 투자기회는 해외에 있는 것입니다.

Fortune
Global
500대 기업의
위치와
기업 이익규모
(적색 원)

자료: fortun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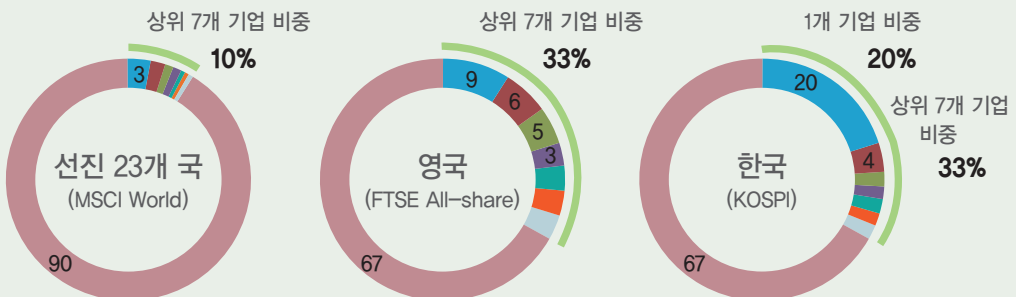
예상하지 못한 집중투자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글로벌 분산이 필요합니다. 2017년 초 개봉한 블



록버스터 재난영화 ‘딥워터 호라이즌’. 이 영화는 2010년 실제 미국 멕시코만에서 BP(British Petroleum)의 석유 시추선 딥워터 호라이즌호가 폭발하며 엄청난 석유 유출을 일으킨 사건을 그린 것인데요. 이것은 사람의 태만으로 일어난 대형 환경참사였던 동시에, 영국 투자자들에게는 국내 분산투자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일깨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영국인들은 우

량주 분산투자를 위해 자국의 FTSE100 인덱스펀드에 투자했는데요. FTSE100중 BP사의 비중이 생각보다 컸던 것입니다. 딥워터 호라이즌 사건으로 BP사는 사고 수습 비용에다 천문학적인 벌금도 물어야 했기에, 당시 BP사 주가는 크게 추락했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해외에 고루 분산한 투자자는 그나마 나았지만, FTSE100 인덱스에만 집중한 투자자들은 BP사의 주가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주가회복이 더디지는 않을까 불안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2018년 10월 말 기준 지역별 주식시장의 집중도



자료: MSCI, FTSE, 한국거래소

오늘날 영국 전체 주식시장을 보면 상위 7개 기업이 여전히 전체 시가총액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점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인데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KOSPI는 1위 기업이 총액의 2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산투자를 위해 KOSPI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더라도 결국 1위 기업의 성과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는 것이지요. 반면 23개 선진국 주식시장을 모은 MSCI World를 살펴보면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Apple)의 경우도 전체 시장에서의 비중이 3%에 불

과합니다. 상위 7개 기업의 비중은 10%로 영국이나 우리나라의 3분의 1에 그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 집중투자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글로벌 분산투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 ‘100-나이 법칙’, 나이가 들수록 주식의 비중을 줄여라

전문가나 경제지의 투자면, 금융회사의 교육자료를 살펴보면 투자와 관련한 여러 정보나 가이드라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종합해보면 공통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기에 빠지지 않는 게 바로 ‘100-나이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투자원칙 (Generally Accepted Investment Principles)

자료: Bodies, Crane(1997년)



- 투자자는 긴급자금을 가져야 하고, 긴급자금은 만기가 짧은 안정적인 자산으로 운용한다.
- 나이가 들수록 주식투자 비중을 줄인다. 예를 들어 ‘100-나이 법칙’이 있다.
- 은퇴준비를 위한 자금은 주로 주식과 장기채권에 투자해야 한다.
- 보유자산이 클수록 주식투자를 늘린다. 이들은 투자리스크를 감당할 여력이 크기 때문이다.
- 전체 포트폴리오를 자산군별로 분산하고, 주식은 산업별로, 기업별로 분산투자 한다.
- 과세대상 투자소득이 큰 자산은 절세혜택이 있는 계좌에, 과세소득이 적은 자산은 일반계좌에 넣어 투자한다.

‘100-나이 법칙’이란 100에서 나이를 뺀 만큼 주식에 투자하라는 간단한 법칙으로, 젊을 때 주로 주식에 투자하고 나이가 들수록 주식비중을 줄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45세라면 100에서 45를 뺀 55%를 주식에 할애하라는 것이고, 나이가 60세라면 40%는 주식에 60%는 채권과 같은 자산에 투자하라는 의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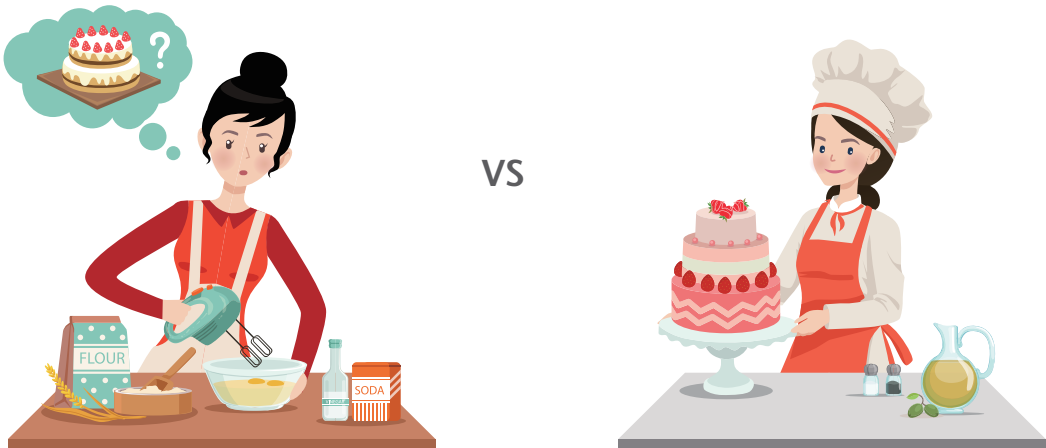
‘나’는 채권일까요? 주식일까요?

우리는 왜 젊을 때 주로 주식에 투자하고 나이 들수록 주식 비중을 줄여야 할까? 쉽게 말해 사람을 금융자산으로 치면 채권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이

자를 지급하는 채권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일할 기간이 많이 남은 젊은 층은 ‘나’라는 만기가 긴 커다란 채권자산을 가진 셈이고, 나이가 들수록 이 채권자산은 점차 줄어들어 은퇴하면 소진되는 것이지요. 이 때 투자포트폴리오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나’라는 채권자산이 큰 젊은 시기에는 금융자산에서 주식에 투자하고, 시간이 흐르며 ‘나’라는 채권이 작아지면 금융자산에서는 채권을 늘리고 주식은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채권 자산에 가깝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소기업가, 주식 브로커처럼 개별기업이나 주식시장에 따라 소득이 좌우되는 경우, 오히려 나라는 자산은 채권보다 주식에 가깝겠지요. 이 때에는 이미 주식자산에 많이 노출되었으니 젊은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보다는 채권자산을 더 많이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 투자관리를 도와주는 금융상품

아들 생일이라 달콤하고 예쁜 케이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밀가루, 생크림, 잼, 이런 재료를 사다가 내가 직접 만들까요? 아니면 가까운 베이커리에 가서 케이크를 사올까요? 제빵실력이 어중간한 보통사람이 직접 케이크를 굽다가는 자녀 생일을 망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빵 전문가인 파티쉐가 미리 만들어 놓은 빵집 케이크는 평균 이상의 맛과 모양이 보장 되겠지요.



직접 케이크를 굽는 게 내가 직접 펀드를 고르고 투자하는 것이라면, 파티쉐가 만든 케익을 사는 것은 자동 운용상품에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TDF(Target Date Fund), 로보어드바이저(Robo Advisor)로 운용하는 것이지요.

① 목표 은퇴시기에 맞춰 안정적으로 운용해주는 TDF

TDF(Target Date Fund)는 펀드 스스로 자산배분을 실행하는 상품입니다. 특히 펀드 투자 후 별다른 지시가 없어도 목표 은퇴시점(예: 2030년)에 가까워질수록 주식투자 비중을 줄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100-나이 법칙’과 같이 나이가 들수록 점차 주식의 비중을 줄여 운용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지요.

국내에도 이미 여러 TDF가 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운용사별로 TDF 투자방식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 해외운용사의 자문을 얻어 자산배분 하는지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지역이나 자산군 별 시장의 성과를 따라가는 전략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투자대상을 발굴해서 투자하는 방식인지 다를 수 있습니다. TDF는 한번 선택하면 투자가 마무리되는 만큼 이런 세부적인 차이점까지도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② 인공지능이 맞춤형 자산관리를 해주는 로보어드바이저

로보어드바이저(Robo Advisor)는 컴퓨터 알고리즘(Algorithms)을 활용해서 자동화된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에서 누구에게나 개인 맞춤형 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공지능이 나의 투자목적, 투자선호도, 투자기간에 따라 적합한 펀드 포트폴리오를 제안해 주는 것이지요.

로보어드바이저는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판단착오나 오류를 줄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로보어드바이저 역시 투자회사가 개발한 알고리즘에 따라 투자포트폴리오 제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의하실 사항]

- 로보어드바이저가 고객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TDF와 포트폴리오형 로보어드바이저

구분	TDF (타깃데이트펀드)	로보어드바이저 (펀드포트폴리오형)
상품/서비스	상품	서비스
개인 맞춤식	○ 은퇴시점만 지정 (예: 2035년, 2045년 5년 단위)	◎ 개인별 투자선호도, 투자금액, 기간 등 반영
자산배분	변동 성장형 자산 비중 80~100%로부터 시간흐름에 따라 안정적 자산배분으로 전환	투자성향에 따라 변동 예 :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위험선호형 ※투자선호도 변경 시 전환 가능
리밸런싱 (Rebalancing)	불필요 (펀드 스스로 리밸런싱 실행)	일임형이 아닌 경우 필요 (정기적으로, 수시로 리밸런싱 가능)
운용주체	운용역(1~2인 또는 집단)	컴퓨터 인공지능
운용방법	재간접 펀드로 여러 하위펀드에 분산투자 함	펀드를 직접 매수하여 투자포트폴리오 구축

금융상품 제대로 활용하자

그동안 회사에서 꼬박 꼬박 월급을 받았다면, 은퇴 이후에는 모아놓은 자산에서 월급을 만들어야 합니다. 은퇴 전까지는 가능한 많이 저축하고 잘 굴리는 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잘 빼 쓰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일찍 금융자산이 바닥나지 않게, 그러면서도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거 기다 오르는 물가도 고려해야 하니 이만저만 복잡한 게 아닙니다.

KEB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도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65~75세 남녀에게 앞으로 어떤 금융상품을 찾겠는지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 ‘여생 동안 끊이지 않고 현금흐름이 나오는 금융상품’을 응답한 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은퇴 이후 돈을 잘 꺼내 쓰는데 활용할만한 금융상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누가 편히 잠을 잘까?



VS



➔ 노후 현금흐름을 만들어주는 금융상품

① 진화하는 연금보험 네 가지

은퇴 후 현금흐름을 만들어주는 상품 하면 연금보험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최근에는 연금보험가입 후 필요할 때 보험료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상품, 매월 연금을 받으면서 투자도 병행할 수 있는 상품처럼 다양한 연금보험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 일반연금보험이 있습니다. 보통 보험사명과 상품 특성을 담아서 ‘***연금보험’이라고 이름이 붙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금보험은 금리연동형 일반연금보험입니다. 이를 줄여서 금리형 연금보험, 또는 일반연금보험 이라고 부릅니다. 이 연금은 보험사의 공시이율로 부리되는데, 공시이율은 보험사가 주는 이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시중금리와 각 보험사의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연금 받는 방식은 부부 또는 개인의 여생 동안 연금을 보장받는 ‘종신형’, 5년~30년 정도 연금 받는 기간을 정하는 ‘확정기간형’, 연금으로 이자 정도만 받다가 사후(死後) 원금에 준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상속연금형’이 있습니다.

둘째, 즉시연금보험입니다. 그 이름처럼 보험료를 한꺼번에 목돈으로 내고 그 즉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연금을 바로 받지 않고 수년 후 원하는 때 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시이율로 부리되어 안정적이라는 점, 종신형, 확정형, 상속형 같은 연금지급방식은 연금보험과 비

습니다. 즉시연금은 그 이름에 보통 '**바로받는 연금' 또는 '**즉시연금'이 붙어서 그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변액연금보험입니다. 연금보험의 적립금을 펀드로 투자해서 그 성과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보험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알아서 자산배분 해주는 펀드, 수수료가 저렴한 ETF, 주가 연계증권(ELS)까지 변액연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대상과 투자방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변액연금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공시이율로 부리되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립하는 시기까지만 투자할 수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연금을 받으면서도 계속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투자성과가 좋으면 나중에라도 연금액이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연금받는 시기 이후에도 투자를 계속하는 경우 보통 안정적인 채권 비중이 60~70% 이상 되도록 조정하는 게 보통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본 연금보험, 즉시연금, 변액연금은 10년 이상 유지하고 보험료가 1억원 이하인 경우 낸 보험료보다 더 받는 부분, 그러니까 보험차익에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험차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네 번째 연금저축보험은 연금보험과 비슷하지만 세제혜택이 전혀 다른 상품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료에 세액공제 혜택(연간 보험료의 13.2%,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이 있는 대신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3.3~5.5%)를 내는 방식입니다. 보험료 낼 때 세제혜택이 없

연금보험의 종류와 특징



구분	운용방법	연금지급 방식	세제혜택
연금보험	공시이율	종신(부부/개인) 확정형(5년~30년) 상속형 실적배당 종신연금 (변액만 가능)	보험료 낼 때 → 없음 연금 받을 때 → 비과세* *10년이상 유지, 일시납 보험료 1억원(납입기간 5년 이상, 보험료 월 150만원) 이하인 경우
즉시연금 보험			
변액연금 보험	여러 펀드로 투자 가능		
연금저축 보험	공시이율	종신(개인), 확정형(5~30년)	보험료 낼 때 → 세액공제 연금 받을 때 → 연금소득세 (3.3%~5.5%)

는 대신 보험차익이 비과세인 연금보험과 다른 셈이지요.

연금지급 방식도 연금보험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종신형 가운데 부부형이 없고 개인형만 가능합니다. 또한 연금은 조금만 받고 만기 또는 가입자 사후(死後)에 목돈을 받는 상속형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이유를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연금 받을 때 받은 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지요. 그러니 당사자 사후에 연금액이 많이 지급되지 않도록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② 생활비를 지급해주는 월지급식 정기예금

목돈을 맡기면 매월 이자만 별도로 주거나 원리금을 나누어서 지급해주는 정기예금도 있습니다. 먼저 정기예금이란 목돈을 장기간 맡기고 이자를 받는 상품으로, 언제든지 돈을 넣고 뺄 수 있는 요구불예금 보다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정기예금은 목돈을 맡긴 뒤 예금만기 때 한꺼번에 찾는 게 보통이지만, 월지급식 정기예금은 목돈을 맡긴 즉시 원금과 이자를 매월 나누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지급식 정기예금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들어서 생활비로 쓰거나 계획적인 지출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손님이 돈을 맡기면서 예금 만기를 정하면 원금과 이자를 매월 나누어서 지급하는 식입니다. 은행에 따라서는 원금은 놔두고 이자만 지급하거나 만기에 남길 자금을 미리 정할 수 있는 유연한 상품도 있습니다. 계약기간과 금리 역시 은행마다 조금씩 다른데, 보통 연단위로 최장 50년까지 지정할 수 있고, 계약기간은 길지만 금리는 매년 또는 3~5년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월지급식 정기예금은 은행 예금이니만큼 원금과 이자 포함해서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도 적용됩니다. 월지급식 정기예금은 비과세종합저축도 가능합니다. 65세 이상이면 비과세종합저축 지정을 통해 원금 5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③ 채권부터 글로벌 자산배분까지, 월지급식 펀드

월지급식 펀드는 매월 펀드수익이나 일정한 현금을 지급해주는 펀드입니다. 펀드 투자자가 매월 투자수익을 거두어 가거나, 매월 조금씩 현금화 하기 어려운 점을 펀드가 해소해주는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펀드인 만큼 투자대상에 따라 월지급식 펀드의 성격도 달라지는데요. 먼저 국내 채권부터, 글로벌 채권, 하이일드 채권, 부동산과 같이 이자수익이나 임대수익이 있는 자산에 투

자하는 것이 있습니다. 채권이나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이 월지급 재원이 되는데요. 수익이 매월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받을 수익을 미리 추정해서 매월 지급 합니다. 나중에 예상과 실제 수익이 달라질 경우 투자원본에서 배분할 수도 있습니다.

주주에게 배당을 많이 주는 편인 기업 주식(배당주)과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글로벌 주식과 채권에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월지급식 펀드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펀드는 투자자가 정한 금액 만큼 매월 조금씩 해지(매도)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지급합니다. 펀드의 투자수익과 원본도 함께 분배 되는 것이지요.

투자대상		월지급 방식	내 용
국내 채권 글로벌 채권 하이일드 채권 부동산		수익 지급형	예상되는 수익을 매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수익이 예상과 다를 경우 원금에서 지급 될 수 있습니다.
혼합형 펀드	배당주	수익+원본 지급형	매월 일정액 또는 펀드자산의 일정율(%)을 지급합니다. 보통 조금씩 해지(매도)하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글로벌 자산배분형		

연금저축펀드나 IRP 투자자는 월지급식 펀드 대신 ‘연금수령신청’

연금저축펀드나 IRP(개인형퇴직연금)는 월지급식 펀드가 아닌, 일반 펀드를 들어도 매월 자동으로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연금수령신청’을 통해서인데요. 연금저축 또는 IRP 가입자는 55세 이후 연/분기/월 가운데 원하는 주기에 따라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지급주기와 연금액에 맞춰 운용중인 펀드를 조금씩 매도해서 현금화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펀드로 운용중이면 펀드의 매도순서를 정하거나, 보유중인 펀드를 모두 조금씩 매도해서 각 펀드의 투자비중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내 재산 내 뜻에 따라 쓰이도록 도와주는 신탁

“치매환자인 시어머니를 모시는 김씨의 시름이 커가고 있다. 병원의 설명대로 어머니의 치매증상이 악화되면 병수발은 오롯이 김씨 몫일 게 뻔하다. 내가 힘든 건 그렇다 쳐도 경제적인 부담이 더 걱정이다. 남편 월급으로 어머니 간병비에 애들 교육비를 동시에 대는 게 빠듯하기 때문이다. 김씨는 고민 끝에 시어머니 소유의 오피스텔을 팔자고 남편에게 털어놨다.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다. 어머니는 동의하실 테지만 형님과 동생네는 어찌 생각할지 김씨 부부는 걱정이다.”

이렇게 가족 간에도 돈은 민감한 문제입니다. 특히 직접 돈관리, 자산관리 하기 힘들면 자식들이 그 일을 맡아야 할 텐데, 자식들 간에 생각이 다르면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19년 KEB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65~75세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4%는 나중에 스스로 돈 관리를 하지 못할까봐 걱정된다고 합니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30년에는 전체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환자일거라는 전망입니다. 언젠가 나에게 내 돈, 내 재산 스스로 관리 할 수 없는 일이라도 생기면 내 재산이 나를 위해 잘 쓰이고, 그러고도 남은 돈은 손자녀나 기부할 곳에 전달되도록 관리해주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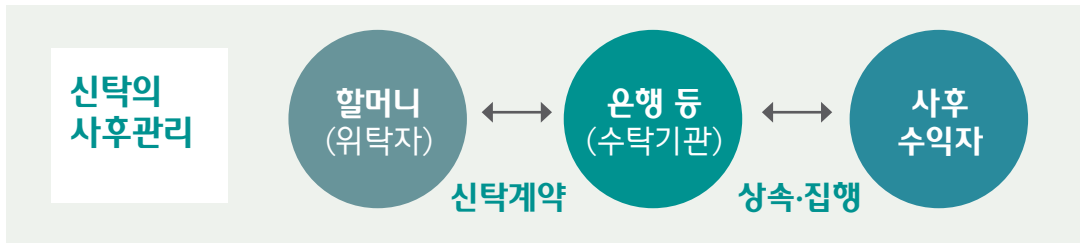
내 뜻에 따라 병원비·요양비·간병비를 내주는 신탁

신탁을 활용하면 투명한 자산관리는 물론 복잡한 상속절차도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큰 병에 걸렸거나 치매가 왔을 때 간병비·병원비·요양비까지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미성년 손자녀 같이 지속적으로 재정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문제도 해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요양·간병비를 처리해주는 경우, 신탁에서는 수탁자인 할머니께 생활비처럼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면서 요양비와 간병비는 따로 송금해 줍니다. 이것과 별도로 할머니는 언제든지 따로 돈을 꺼내 쓸 수도 있는데, 이때에도 자녀가 대신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탁재산은 정기예금이나 채권과 같은 안정적인 상품으로 운용되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신탁이란 위탁하는 사람의 요구사항에 따라 맞춤형 관리도 가능하니 실제 운용방법은 은행 등 수탁회사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맡겨진 신탁재산은 목적에 맞게 잘 쓰다가 위탁자의 의지에 따라 남으면 자녀에게 분배하거나 기부하고 싶은 곳에 전달되도록 집행됩니다.

내 뜻에 따라 재산을 물려주는 신탁

상속이 필요해진 때 재산을 맡겼던 분이 미리 지정한 가족이나 믿을만한 분에게 안전하게 보관 중인 신탁재산을 지급하는 신탁도 있습니다. 신탁을 활용하면 돈을 남겨주고 싶은 자녀, 또는 제 3자, 법인에게도 남기고 싶은 만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신탁재산을 받는 사람은 법정 상속인의 동의 없이도 수탁회사에 방문하면 남긴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신탁은 남길 재산이 상당히 많은 사람만 활용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고시 자녀가 장례비로 내야 할 목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례절차에 필요한 돈 정도만 맡기거나 적금처럼 1만원 정도 소액부터 적립식으로 나누어 내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신탁을 통해 상조회사와 연계하여 장례서비스를 받거나, 상속과 관련한 세무, 법률 등 유산정리지원 서비스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내 돈 내 뜻대로 쓰이도록 하는 신탁, 특별한 사람만이 아닌 보통사람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은퇴하기 5년 전에 점검해야 할 것들

은퇴 5년 전... 노후준비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골든 타임입니다. 은퇴까지 5년의 시간은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최적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너무 멀지 않으니 은퇴 이후 어떻게 살까에 대한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양육이나 주택마련 처럼 굵직한 이벤트는 얼추 마무리되고 은퇴할 때까지 더 들어갈 목돈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5년은 은퇴까지 너무 짧지도 않습니다. 은퇴준비가 부족하면 저축을 늘려 은퇴준비에 막판 스퍼트를 가할 수 있는 마지노선입니다. 은퇴 5년 전 해야 할 것은 은퇴준비 점검보다 차라리 철저한 검증에 가깝습니다. 검증에서 모든 준비가 된 것으로 드러나면 예정보다 빨리 은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행복한 조퇴(早退)가 바로 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 합리적으로 생활하기 어디까지 가능할까?

먼저 매월 지출되는 생활비를 정확히 파악해봅니다. 생활비 총액뿐만 아파트 관리비·세금·통신비·식료품처럼 정기적으로 꼭 지출해야 하는 필수생활비와 의복비·외식비·오락비·용돈과 같이 마음만 먹으면 단시간에 줄이는 게 가능한 항목으로 구분합니다. 가족들이 삶에 큰 불편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허리끈을 졸라맨다면 어디까지 생활비를 조정할 수 있을지도 예상해 봅니다.

생활비를 파악하는데 가계부 쓰기만한 게 없지만, 여태 써보지도 않고 적성에도 안 맞는다면? 두어 달만 현금으로 생활비 쓰는 건 어떨까요? 한달 생활비를 모두 인출해서 봉투에 담아 놓고 지출합니다. 그러면 돈이 점차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고 월말에 남은 돈으로 이번 달 생활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출 항목별로 서너 개 봉투를 마련하면 어디서 생각보다 많이 나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그대로 받을까, 늘려 받을까?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지 확인합니다. 식료품비나 관리비 같은 최소 생활비를 국민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면 충분하지만, 그 이상이 가능하다면 금상첨화입니다.

국민연금을 늘려야 할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입니다. **첫째, 과거 못 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방법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못 낸 기간이 있거나 냈던 보험료를 돌려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이 때 보험료 추후납부, 반환일시금 반납으로 가입기간을 연장하면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둘째, 60세가 넘어도 보험료를 계속 내는 방법입니다.** 이를 임의계속가입이라고 하는데, 60세가 되기 전에 공단에 신청하면 최장 65세까지 보험료를 더 낼 수 있습니다. **셋째, 내 가족 중 국민연금 가입자를 늘리는 것입니다.**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임의가입을 하면 나중에 배우자 앞으로 연금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은퇴할 때까지 저축 더 할까?

은퇴까지 5년 남은 지금, 노후 생활비를 월 몇 만원 더 마련하려면 추가로 얼마를 더 저축해야 할까요? 은퇴 후 30년간 생활비 월 1만원을 추가로 늘리려면 남은 5년 동안 월 약 4.3만원씩 저축해야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적립금 운용 수익률이 연 3.53%, 은퇴 이후 물가상승률은 연 1.9%로 은퇴할 때부터 1만원의 생활비 가치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가정에서 계산한 결과입니다. 만약 1만원이 아니라 월 10만원을 확보하고 싶다면? 앞으로 5년간 월 43만원을 저축해야 합니다.

은퇴 후 월 1만원은 지금부터 월 얼마?

(단위: 만원)

노후기간 은퇴까지남은기간	25년	30년	35년
1년 전(12개월)	20.2	23.3	26.2
3년 전(36개월)	6.5	7.5	8.4
5년 전(60개월)	3.8	4.3	4.9
10년 전(120개월)	1.7	2.0	2.2

주: 물가상승률 연 1.9%(통계청 발표 '10년~'18년까지 연평균 물가상승률), 은퇴자금 수익률 연 3.53%(금융감독원 발표 '17년 말 기준 직전 9년간 퇴직연금(DC형·기업형IRP) 장기수익률)를 가정하여 계산하며
제세금 및 비용은 고려하지 않음.

➔ 내가 가진 건강보험 빈틈이 있나?

가족 건강보험 포트폴리오 점검도 필요합니다. 건강보험은 ①누구의 ②어떤 질병을 ③언제까지 보장해주는지 살펴봅니다. 먼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보장받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암보험이라고 하더라도 골수암, 백혈병, 식도암 같이 특정한 고액암에만 쏠려 있어서 막상 보험금이 필요할 때 낭패를 보지 않도록 합니다. 특히 수명이 연장되는 만큼 질병을 보장하는 기간이 충분히 긴지 체크하는 게 필수입니다. 이런 건강보험 빈틈 메우기는 늦어도 60대 초반까지는 마무리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보험에 아무리 가입하고 싶어도 불가능하거나, 암보험은 들기 어려워지는 등 보장범위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납입기간 확인도 필요합니다. 은퇴 이후 잔여 납입기간이 남아있다면 결국 은퇴 후 생활자금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은퇴 전 납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합니다.

100세 시대가 되면서 거동이 불편해지는 때를 대비한 보험이 새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바로 간병보험, 치매보험인데요, 크게 치매(알츠하이머)·루게릭·파킨슨병·중풍처럼 인지나 거동에 장애를 주는 질병을 진단받은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과,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때 보험금을 주는 상품으로 나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목돈을 한꺼번에 주거나(진단금), 연금이나 생활자금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연금, 생활자금)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포트폴리오 체크 리스트(예시)

구 분		보 장	피보험자	금 액	만 기
3대 질병	암 (급성)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뇌혈관질환	진단	본인 / 배우자	3천만원	100세
		수술	본인 / 배우자	5백만원	80세
		치료	본인 / 배우자	3백만원	80세
		입원	본인 / 배우자	5만원(1일)	80세
		통원	본인 / 배우자		
		사망	본인 / 배우자	3천만원	100세
기타 질병		진단	본인 / 배우자	5백만원	
		입원	본인 / 배우자		
		수술	본인 / 배우자		
		통원	본인 / 배우자		
		사망	본인 / 배우자	5백만원	
재해		입원	본인 / 배우자	3만원(1일)	100세
		수술	본인 / 배우자		
		통원	본인 / 배우자		
		사망/장해	본인 / 배우자	3천만원	
실손 의료비		입원	본인 / 배우자		
		통원	본인 / 배우자		
간병	장기요양등급 판정 치매 · 파킨슨 · 루게릭병 · 중풍	진단	본인 / 배우자		
		연금 (생활자금)	본인 / 배우자		
기타(치아보험 등)			본인 / 배우자		

➔ 어디서 살까,주택 활용계획 세우기

은퇴 한 뒤 주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을 세웁니다. 주택은 가계 자산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금융자산이 모자랄 때에는 노후 재원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퇴하기 전에 미리 주택과 같은 부동산 활용 계획을 세워야 하는 이유는 부동산 직접투자의 특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부동산은 교통이나 인접지역 환경, 개발계획, 관련규제 등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 매매결정을 하는 게 필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을 사고 파는

것은 큰 돈이 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삶에 커다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제적 여력이 있을 때 미리 계획해 두는 게 상책입니다.

살고 있던 주택과 관련해서는 ① 그대로 살 것인가, ② 주택규모만 줄일까, ③ 다른 곳으로 이사 할까 계획해 봅니다. 이런 선택지별로 얼마나 돈이 더 들어갈까, 오히려 돈이 들어올 수 있을까 가능해 봅니다. 특히 은퇴 후에도 살던 집에서 계속 살면 당장 돈이 들지 않겠지만 추후 주택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 한꺼번에 목돈이 필요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은퇴할 때 실행해야 할 것들

➡ 국민연금 늦춰 받을까? 결정하기

은퇴 후 일을 계속해서 소득이 들어온다면? 3~4년 정도는 국민연금 안 받아도 생활에 커다란 지장이 없다면? 이 때에는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는 대신 연금액을 늘리는 연기연금 신청을 생각해 볼만 합니다.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면 연금 받는 시기를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이 7.2%씩 늘어납니다. 최장 5년을 늦추면 36%까지 연금을 더 받는 거지요. 예를 들어봅시다. 2014년 국민연금 130만원을 받을 예정이었던 A씨, 5년간 연기연금을 신청했다면 2019년부터 얼마를 받게 될까요? 계산상으로는 약 188만원을 받게 됩니다. 5년간 연기해서 36%가 늘어난 금액에다 5년간 물가상승으로 인해 연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받는 나이를 넘어서도 일을 해서 그 소득이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2019년 236만원)을 넘으면 감액연금을 받습니다. 소득이 유지되는 동안 연금이 줄어드는 거지요.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고 추후 소득이 줄었을 때 국민연금을 더 받는 전략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 평생 소득 얼마나 확보할까? 종신연금 가입하기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모두 충당하기 어려우니 나머지는 내 재산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 때 종신연금보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종신연금보험은 보험사에서 평생까지 연금지급을 보장하니까 오래 살아도 돈이 바닥날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반면 살다 보면 목돈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연금보험에 지나치게 많이 가입하면 돈이 보험사에 묶이니 정작 내가

필요할 때 내 돈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종신연금보험에 적당히 가입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 방법 중 하나가 기초생활비만큼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올 수 있도록 연금보험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월세, 아파트 관리비, 세금과 공과금, 식료품비, 일부 교통비는 당장 없으면 곤란한 기초생활비입니다. 그만큼은 연금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생계비가 월 120만원이고 국민연금을 월 80만원 정도 받는다면, 최소한 월 40만원은 연금보험에서 충당해주는 겁니다.

이미 가입해둔 연금보험에서 나올 연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즉시연금보험에 가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즉시연금이란 한꺼번에 보험료를 내고 바로 다음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10년 이상 연금을 받으면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요. 원한다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을 바로 받는 대신 연금 받을 때를 나중에 미룰 수도 있습니다.

👉 생활비로 얼마씩 빼 쓸까? 투자자산 인출방법 정하기

이제 연금보험 이외에 금융자산에서 나머지 생활비를 확보해야 할텐데요.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과 같은 개인연금계좌는 연금수령신청을 하면 정기적으로 운용자산을 현금으로 바꿔서 내 계좌로 송금해 주니, 이것을 활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금융자산은 전적으로 내 스스로 관리해야 하니 직접 현금화 해서 인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금융자산이 노후기간 동안 바닥나는 일 없이 인출해 쓰려면 매년 얼마씩 현금화 하는 게 좋을까요? 참고할만한 지침으로 '4% 인출법칙(4% Rule)'을 소개할까 합니다. 90년대 미국에서 처음 등장해 여전히 활발히 이용되는 단순 법칙인데요.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은퇴하는 첫 해 모아놓은 자금의 4%를 인출합니다. 다음해부터는 지난해 인출한 돈에서 물가상승률만큼 늘려 꺼내 씁니다. 이렇게 하면 노후기간 30년 이내에 투자자산이 바닥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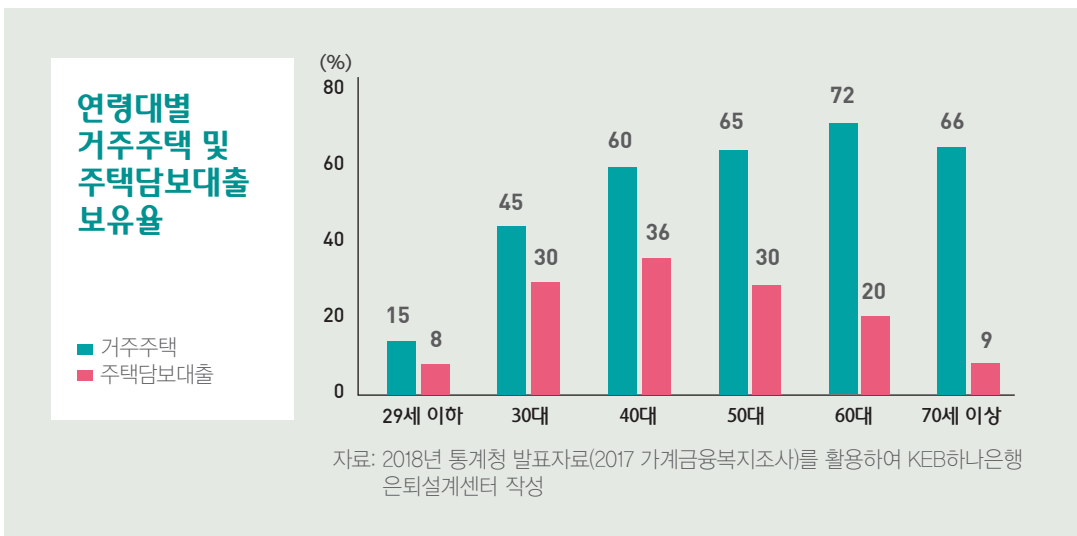
투자자산의 인출법칙, 4%법칙(4%Rule)

금융자산이 3억원일 때 첫해 그 4%인 1,200만원(월 100만원)을 인출합니다.

그 이듬해에는 1,200만원에 물가상승률(예: 3%) 만큼 늘린 1,236만원을 인출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4%법칙은 금융자산을 투자할 때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법칙을 고안한 윌리엄 벤젠(William P. Bengen)에 따르면 주식과 중기채권에 절반씩 투자한 때 분석한 결과라는 겁니다.¹⁵⁾ 만약 예금과 같은 안정적인 상품만으로 운용할 때 4%법칙을 따르면 25년을 전후로 금융자산이 분명 소진됩니다. 4%법칙은 단순해서 기억하기 쉽고 별다른 재정분석 없이도 당장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순법칙인 만큼 참고로 하고 반드시 중간점검을 해서 인출방법을 적절히 수정해가야 하겠습니다.

➔ 내 집 담보대출 관리전략 세우기



집집마다 가장 큰 재산은 바로 주택입니다. 주택은 우리나라 은퇴자들에게 특히 중요한데요, 금융자산이 모자랄 때 주택을 줄여가거나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노후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택자산을 활용할 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직 상환하지 못한 주택담보 대출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지나치게 늦어지면 나중에 집을 줄여서 차액을 가지려고 해도 채무를 상환하고 나면 손에 질 수 있는 돈이 얼마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연금도 원칙적으로 담보대출이 없는 거주주택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일시금으로 담보대출을 상환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받는 연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15) William P. Bengen(1994), Determining Withdrawal Rates Using Historical Data, *Journal of Financial Planning*, 7(4), 171-180

또한 안정적으로 가계를 꾸려가려면 주택관련 채무 상환액이 가계소득의 20% 이하가 되는게 바람직 합니다.¹⁶⁾ 은퇴하게 되면 소득이 크게 줄거나 들쭉날쭉 할 수 있으니 그만큼 미리미리 주택 담보대출 상환계획을 세워야겠습니다.

➡ **평충 된다는 국민건강보험료 어찌지? 국민건강보험료 잡는 방법 찾기**

회사에서 퇴직한 직장인 중 60%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보험료가 올랐다고 합니다.¹⁷⁾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직장다닐 때보다 보험료가 오른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최장 3년까지 직장 다닐 때 냈던 보험료 그대로 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를 절약하는 또 다른 방법은 직장에 다니는 성인자녀의 피부양자가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안에 들어야 하는데요. 먼저 과세대상 소득이 3천4백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재산이 5억4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이면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16) 양세정, 주소현, 차경욱, 김민정(2013), 한국형 가계재무비율 도출 및 가이드라인 제언, Financial Planning Review 제6권 3호 (2013년 8월)

17)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8.06.19),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 10문 10답”



[5장]

온퇴준비, 이것도 궁금해요

기초연금 65세가 되면 받을 수 있다는데, 나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미처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기간이 짧아서 노후대비가 부족한 어르신들께 지급해 드리는 연금입니다.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혜택을 고루 나누어 드리는 제도인 것이지요. 지난 2018년

4월부터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이 25만원이 되었습니다. 2019년 4월 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형편이 어려운(소득·재산 수준이 65세 이상인 사람 중 하위 20%)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금액이 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2020년에는 월 30만원 받을 대상자가 확대되고, 2021년에는 모든 사람의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일정기준보다 적어서 형편이 어려운 분들께 지급하는데요.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①월 소득액과 ②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2019년 이 금액이 1인가구일 때 137만원, 부부가구는 219만2,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기준은 매년 조금씩 달라집니다.

소득평가액 = {0.7×(근로소득 - 94만원)} +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국민연금 등, 무료 임차소득

재산 월소득 환산액 = [{(일반재산-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2천만원)-부채} ×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구분	공제액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	7,250만원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70세 A씨가 주택 3억원, 금융재산 7천만원, 부채 5천만원이 있다고 할 때 근로소득이 얼마일 때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A씨가 홀로 살 때에는 근로소득 약 211만원 이하일 때, 부부가 사는 경우 약 329만원일 때까지 국민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어디까지나 계산에 의한 것입니다. 국민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인정액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싶다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ohw.go.kr>)의 <기초연금 자가진단>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전화(129)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도 자세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받을 때 세금을 내나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냅니다. 자세히 말하면 2002년 이후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분에 대해 세금을 내는데요. 이 때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

해 소득공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과거 안 냈던 세금, 연금 받을 때 내는 것이지요. 월 급처럼 매월 국민연금을 받기 때문에 1월에 연말정산도 합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때 세금은 얼마나 낼까? 먼저 2002년 이후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았던 부분이 과세대상 연금액이 됩니다. 여기서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 최대 9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도 받습니다. 이렇게 산출된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곱하고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차감하면 노령연금에 대한 세금이 계산됩니다.

**연금소득공제
(소득세법
47의 2)**



총 연금액	공제기준	최대 공제액
350만원 이하	전액	350만원
350만원~700만원 이하	$350\text{만원} + 350\text{만원 초과액} \times 40\%$	490만원
700만원~1400만원 이하	$490\text{만원} + 700\text{만원 초과액} \times 20\%$	630만원
1400만원 초과	$630\text{만원} + 1400\text{만원 초과액} \times 10\%$	900만원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은 국민연금공단이 원천징수 합니다. 마치 회사가 월급에서 세금을 먼저 떼는 것과 같습니다. 12월에 연말정산 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하거나 더 내야 할 세금이 있으면 다음 해 1월 연금에 가감됩니다.

노령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납세 절차는 이것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노령연금을 수령한 사람은 연금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헤어진 부부 연금도 갈라 받나요?

함께 살던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노후생활의 주 수입원인 연금을 나눠받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황혼이혼의 경우 부부로 산 기간이 긴 만큼 서로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크고, 이혼 후 노후소득을 확보하는 문제도 풀어야 합니다. 이들 가운데 연금을 이혼한 부부에게 각각 나누어 지급하는 분할연금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이혼 후 연금을 나눠받을 수 있다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금액은 혼인기간 동안 만들어진 국민연금액에 분할비율을 적용해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자 A씨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20년 중 10년 동안 B씨와 혼인을 지속했습니다. A씨가 국민연금으로 월 100만원을 받는다면, 혼인기간에 발생한 연금 50만원의 절반인 25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16년 12월부터는 이 분할비율도 당사자간 협의나 법원 판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인 A씨가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이르고 분할연금 신청자 B씨도 노령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이 갖춰진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이 시기가 지나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고 맙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재산분할 대상

퇴직금이나 개인연금은 분할연금이라는 제도는 없지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퇴직금)의 경우 이혼 시점에 추정한 금액을 바탕으로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면 쌍방간 합의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분할

방법이 달라집니다. 부부 쌍방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경우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퇴직했어요. 국민건강보험료 어떻게 달라지나요?

그동안 직장에 다니셨다면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 별 걱정이 없었습니다. 보험료는 총 급여에 직장가입자 보험료율(6.46%, 2019년 기준)을 곱하는 것으로 계산도 간단하고 회사와 본인이 반반씩 부담했습니다. 게다가 회사가 알아서 월급에서 공제하니 따

로 신경 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가 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보험료 계산방식도 종전과 전혀 다르고, 직접 보험료를 납부해야 해야 하니, 그 변화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세대 구성원이 가진 소득과 재산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직장인인 사업장가입자와는 달리,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각 세대별로 계산됩니다. 세대주와 세대원이 가진 ①소득 ②재산 ③승용차별로 부과점수를 매기고, 그 총점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2019년에는 1점당 189.7원인데 이 금액은 매년 조정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해서 내야 할 보험료가 정해지는데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에다 보험료율(8.51%, 2019년)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소득점수: 근로·연금소득은 2022년까지 30%만 보험료 부과

먼저 소득부분은 근로·사업·금융·연금·기타소득이 보험료 부과대상입니다.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같은 연금소득은 30%만 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는데, 2022년 7월 이후부터는 이 비중이 50%로 높아질 예정입니다. 만약 세대의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면 점수계산 없이 최저보험료(13,100원 2018년 기준)가 매겨집니다.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

$$\text{국민건강보험료} = [\text{①소득점수} + \text{②재산점수} + \text{③승용차 점수}] \times \frac{\text{점수당 금액}^*}{2019년 189.7원}$$

$$\text{장기요양보험료} = \text{국민건강보험료} \times \frac{\text{보험료율}}{2019년 8.51\%}$$

재산점수: 세대가 가진 부동산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책정

재산은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그리고 전월세액까지 보험료 계산 대상이 됩니다. 시가보다 작은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재산규모에 따른 공제가 있습니다. 재산이 1,200만원 이하면 전액 공제 되고, 1,200만원~2,700만원 이하면 850만원, 2,700만원~5,000만원 이하는 500만원 공제가 됩니다. 재산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전월세액에 대해서만 50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승용차 점수: 4천만원 이상 또는 1600cc 이상 승용차가 대상

승용차의 경우 4천만원 이하의 소형차량(배기량 1600cc 이하), 승합차 화물차 등 생계형 자동차, 9년 이상 된 승용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밖의 승용차는 배기량이 클수록, 사용연수가 짧을수록 점수가 높아집니다.

복잡해도 너무 복잡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금 내가 지역가입자가 된다면 보험료가 얼마나 될지 알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모의계산 해볼 수 있습니다. 또는 콜센터(1577-1000)에 전화하면 상담원을 통해 보다 정확한 보험료 예상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직장인 자녀가 있어요.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은퇴자 세대의 소득과 재산규모가 인정기준 안에 들게 되면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소득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사업·금융·연금·기타소득 등 연간

합산소득이 3천4백만원(월 283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역가입자가 되어 따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득은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니 실제 벌어들이는 돈 기준으로 보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아도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대가 보유한 재산이 과표로 5억4천만원을 넘기면 지역가입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여기에 해당해도 세대의 연소득이 1천만원보다 적으면 피부

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더라도 소득이 지나치게 적으면 보험료를 낼 여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기준이 보다 엄격해질 예정입니다. 먼저 소득의 경우 합산소득 3천4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아집니다. 재산기준은 2022년을 기점으로 5억4천만원에서 3억6천만원으로 하락합니다. 2022년부터는 이 기준을 넘어서면 직장가입자 자녀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만약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있다면 자녀가 다니는 직장에 피부양자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피부양자 등록도 가능합니다.

나이 들어 거동이 불편할 때, 요양원이 낫나요? 요양병원이 낫나요?

인구고령화로 인해 집안마다 80~90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늘면서 나이드신 부모를 모시기 위해 요양시설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당장 부모님을 모시지 않더라도 나중에 내가 요양이 필요해지면 집에

서 가족들에게 의지하기보다 요양시설을 찾겠다는 사람들도 늘고 있지요. 이렇게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들을 장기간 돌봐주는 곳으로 크게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먼저 요양원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도움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들을 보살피는 곳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보험 적용 신청을 한 뒤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이 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국가 자격증을 소지한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을 돌보게 됩니다.

요양병원은 노인을 치료하는 의료시설로, 병원이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이 아닌 건강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비용이 요양원보다 비싼 편입니다. 대신 의사와 간호사가 있어서 요양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치료가 함께 필요할 때 적합한 곳입니다.

의사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라면, 매달 100만원 넘게 들어가는 비용을 대기 어렵다면 요양원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반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비용은 들지만 의사의 치료와 간병인의 돌봄이 있는 요양병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비교



내용	요양원	요양병원
구분	노인의료복지시설	의료시설
입소자격	노인장기요양등급 1~2등급을 받은 어르신	노인성 질환으로 의료적 처치 및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
의사	없음	있음
요양보호사	있음	없음
월 비용	50~100만원	80~300만원

자료: 이한세, 미래에셋은퇴 연구소(2017년)

만약 우리 부모님이 치매라면, 어디를 찾지?

치매를 앓는 부모님 때문에 온 가족이 마음고생 한다는 주변의 소식을 듣다 보면 덜컥 ‘내 부모님이 치매면 어쩌나’, ‘내가 치매에 걸리면 어떨하나’라는 걱정이 스칩니다. 2030년에는 전체 노인 10명 중 1명인 127만 명이 치매환자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치매환자 가족은 평균 4년, 최대

10년 동안 환자를 돌봐야 한다고 하는데요.¹⁸⁾ 간병기간이 길어지면 경제적 어려움은 그렇다 쳐도 심신이 피로해진 가족간 불화까지 겹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치매환자의 간병 부담을 덜 수 있는 서비스를 보다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 있다는 희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된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이 1:1 맞춤형 상담과 서비스를 연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센터 내 치매단기쉼터와 치매카페(cafe)가 있어서 치매 어르신의 증상 악화를 지연시키고 가족들을 정서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센터가 문을 닫는 야간에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를 통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치매상담센터	한국치매협회	한국치매가족협회
1899-9988	02)762-0710	02)431-9993

18) 중앙치매센터(http://치매국가책임제.nid.or.kr/sub/nid00_3.html)

그리고 치매환자의 장기요양 서비스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우선 거동의 불편은 없지만 치매증상이 진행중인 경증 치매 어르신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치매 안심형 시설도 확충해서 치매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던가 치매전문 보호시설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치매 관련 서비스 상담창구는 ‘치매안심센터’가 중심이 될 거라는데요. 내 부모님이 치매가 의심된다면, 앞으로 망설이지 말고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게 현명합니다.

퇴직 후 재취업·창업정보 어디서 찾나요?

오랜 기간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한 후 재취업이나 창업을 생각하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때

에는 일자리 창출이나 창업지원을 실행하는 정부기관 및 준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을 실행하는 기관, 또는 창업지원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일부 사회활동 포털에서는 일 뿐만 아니라 재능기부와 자원봉사, 여가생활, 복지혜택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일자리, 창업 등 중장년층 사회활동 정보처



고용정보원의 워크넷은 장년층 일자리에 특화된 ‘장년 일자리 희망넷’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www.work.go.kr 문의: 1350(노동노동부 상담센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시니어 사회활동 정보 포털사이트입니다. 일자리만이 아니라 교육, 창업, 여가 및 복지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이트: www.kordi.or.kr 문의: 031-8035-7500



사단법인 고령사회고용진흥원은 공공기관, 민간기관, 사회적기업과 연계하여 중장년층들에게 일자리, 재능기부 및 사회활동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이트: www.ask.re.kr 문의: 031-3675-7179

50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곳
www.50plus.or.kr

서울시의 50플러스 포털은 인생2막을 설계하는 장년층을 위해 일자리, 사회공헌, 여가 등 다양한 활동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www.50plus.or.kr 문의: 1611-5516

I·SEOUL·U
서울일자리포털

서울일자리포털에서는 공공일자리와 인재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훈련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창업교육과 창업지원 프로그램도 운영중입니다.
사이트: job.seoul.go.kr 문의: 1588-914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창업과 점포경영 교육, 멘토링, 사업화 지원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지역별 상권정보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 www.semas.or.kr 문의: 1357(통합콜센터)

K<Startup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곳으로 정부 창업지원사업을 주관합니다. 창업교육, 컨설팅과 멘토링을 지원하고, 1인 기업에 사무공간과 세무, 법률과 같은 전문가 자문을 지원하는 지원센터도 운영 중입니다.
사이트: www.k-stprtpup.go.kr 문의: 1357(통합콜센터)

재취업 기회 찾기, 스쳐간 인연도 다시보자

미국 스탠퍼드대 사회학과 학과장인 마크 그라노베퍼(Mark Granovetter) 석좌교수는 경제사회학과 사회 연결망 이론에서 저명한 학자입니다. 그의 중요 업적은 바로 사람들이 새 일자리를 찾을 때 느슨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분석한 연구입니다.

그에 따르면 가족이나 직장 동료처럼 나와 가까운 사람은 새 일자리를 찾는 나를 돕고 싶겠지요. 하지만 그가 아는 사람은 이미 나와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고, 결국 그가 주는 일자리 정보 역시 이미 내가 아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대신 나와 몇 번만 만났던 느슨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겹치지 않아 내가 몰랐던 새로운 일자리 정보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느슨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더 나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지요.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만났던 사람, 나와 취미가 같아서 잠시 만났던 사람, 스쳐갔던 인연들이 새 삶을 여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쯤 이들에게 연락해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세액공제, 소득공제, 비과세 차이점이 뭔가요?(2019년 1월 기준)

‘절세’야말로 정말 챙기면 아무런
리스크 없이 얻을 수 있는 ‘공짜점
심’입니다. 그러니 은퇴자금, 또는

목돈을 마련할 때 절세상품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데 절세상품마다 세액공제, 소득공제, 비과세 등 혜택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 각각 어떻게 다른지 정리해 볼까요?

소득공제, 세금을 메기는 소득이 줄어든다

소득공제란 가입자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서 한 해 동안 금융상품에 넣은 돈을 빼준다는 의미입니다. 공제액만큼 소득이 줄어드니 낼 세금도 작아지는 것이지요.

소득공제 상품의 경우 가입자의 소득규모에 따라 절세효과가 달라지는데요. 이는 소득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한 해 소득이 7,000만원인 근로자가 5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해봅시다. 이때 소득공제 효과를 살펴보면 4,600만원~8,800만원 구간의 소득세율이 26.4%(지방소득세 포함)이니 132만원(=500만원×26.4%)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돈을 불입했다라도 올 한해 소득이 3,500만원 이면 절세금액은 82만5천원(=500만원×16.5%)입니다. 1,200만원~4,600만원에 해당하는 세율은 16.5%이기 때문이지요.

대표적인 소득공제 금융상품으로 ‘노란우산공제’와 ‘주택청약통장’이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대표나 소상공인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연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은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고 연간 240만원을 한도로 납입액의 40%(최대 96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에서 차감해준다

세액공제란 금융상품에 납입한 돈에 비례하여 가입자가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올 한해 연금계좌에 납입한 돈 700만원의 13.2%를 세액공제 받는다고 합시다. 이때에는 내야 할 세금에서 92만 4천원(= 700만원 × 13.2%)만큼 직접 빼주는 것이지요. 소득규모에 따라 절세금액이 달라지는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공제는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넣는 돈에 따라서만 절세금액이 달라지지요.

세액공제 상품의 대표주자는 ‘IRP(개인형퇴직연금)’와 ‘연금저축’입니다. IRP는 연 700만원까지, 연금저축은 연 400만원(근로소득 1억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1억원 초과시 연 300만원)까지

상품별로 세액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IRP와 연금저축에 납입한 돈을 합쳐서 연 7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됩니다. 세액공제율은 소득수준별로 다른데요. 근로소득이 5,500만원을 넘으면 13.2%, 5,500만원 이하이면 16.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비과세, 금융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금융상품에 불입한 돈에 따라서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를 줄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과세는 금융상품을 운용해서 얻은 소득, 그러니까 이자나 배당, 금융상품 매매차익에 메기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면제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비과세 상품으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있습니다. ISA의 경우 돈을 꺼낼 때 넣은 원금 대비 불어난 순수익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서민형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형태인데,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두 배 높은 게 특징입니다.

ISA 비과세 한도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요? ISA의 비과세 한도를 넘은 수익부분은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내는 것으로 과세가 마무리 됩니다. 일반 금융상품의 경우 수익의 15.4% 세금을 내야 하는 것에 비하면 절세혜택이 쏠쏠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ISA 이외에 연금보험상품도 비과세 상품에 해당합니다. 연금보험은 일시납 보험료 1억원 이하(또는 납입기간 5년 이상 월 150만원 이하)일 때, 10년 이상 유지시 보험금 대비 더 받는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되는 저축상품입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비과세 비교(2019년 1월 기준)

구분	소득공제	세액공제	비과세
공제(면제) 대상	근로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세/사업소득세	금융소득
특징	소득수준(세율)에 따라 절세효과 달라진다. 소득이 1,200만원 이하(세율 6.6%) 적용세율이면 IRP와 같은 세액공제 상품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소득에 관계없이 절세효과 일정하다. 널 세금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세금액까지만 절세된다.	금융소득이 커질수록 절세효과 늘어난다. 해외주식이나 해외채권 등 수익 등 금융소득세 과세대상이 많을 때 유리하다.
대표상품	노란우산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IRP(개인형퇴직연금) 연금저축	ISA(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 10년 이상 유지 연금보험

내 연금, 금융생활 정보 한번에 찾을 수 있는 곳은?

2018년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IRP·연금저축(신탁·보험·펀드)·연금보험과 같은 연금상품에 가입한 사람들을 조사해보니, 2명 중 1명(51%)은 연금상품 2개 이상 가지고 있고, 연금상품이 4개 이상이나 되는 경우도 10명 중 1명(7%)에 가까웠다고 합니다.¹⁹⁾ 이렇게 여러 개 연금상품이 있다면 모인 돈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운용되는지 미처 알지 못하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이 경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내 연금자산을 한번에 알아보고 국민연금 예상액도 조회할 수 있는 곳을 찾으면 내 노후대비가 얼마나 됐는지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내가 가진 예·적금이나, 펀드, 보험 정보도 한꺼번에 찾아볼 수 있는 곳도 있으니, 이를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연금정보 찾기



[내연금 알아보기] 메뉴에서 국민·개인·퇴직·주택연금의 가입현황을 알 수 있고, 국민연금의 노후준비 강의, 노후준비 컨설팅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csa.nps.or.kr



공·사적 연금과 관련된 체계적인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으며, 노후 생활비를 기준으로 하여 과부족자금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 www.100lifeplan.fss.or.kr

금융정보 생활정보 찾기



잡자는 내 돈 찾기: 휴면예금 보험금 조회,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카드 포인트, 미환급 보험료 등을 조회합니다.
내 계좌 한눈에: 흩어져 있던 금융계좌, 자동이체 정보, 보험·카드 대출 정보를 확인합니다.
금융상품 한눈에: 예적금, 펀드, 보험, 대출 연금 등 금융상품 정보와 신용정보조회, 카드포인트조회 등 각종 금융정보 조회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fine.fss.or.kr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예상액, 학자금 대출, 디딤돌 대출 등 연금과 생활금융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금납입/미환급금, 건강검진 정보 등 내 생활에 밀접한 정보도 조회 가능합니다.
사이트: www.gov.kr

19)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18), 개인연금 가입자의 특성 분석

본 책자에 수록된 금융상품에 대해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 유의사항]

****예금****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상품****

-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펀드를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로보어드바이저가 고객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험상품****

-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즉시연금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변액보험은 운용실적에 따라 납입원금의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귀속되는 실적배당형 상품입니다.
- 변액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최저사망보험금(상품별 상이)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본 안내자료는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된 내용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약관, 상품설명서 및 운용설명서(변액보험의 경우)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및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2년 이내 자살 시,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비영리공익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제도입니다.
- 노란우산공제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경우 홈페이지: www.8899.or.kr를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와의 업무위수탁 계약에 의거하여 KEB하나은행에서 대행 판매합니다.
-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 [DC/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DB]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금융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별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이 계좌 내 금융투자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ISA내 예금, 다른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 당사는 이 계좌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중도해지시 일반과세(15.4%)로 과세되는 등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서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 및 세부 운용지시대로 운용하며 가입유형 및 자산유형에 따른 신탁보수가 발생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또는 KEB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영업점 및 콜센터(1599-14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탁계약****

- 이 금융투자상품(신탁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계약하시기 전에 운용방법의 지정, 해지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신탁계약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신탁계약)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당사는 (위험성, 수수료, 해지방법 등) 금융투자상품(신탁계약)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사필 2019-광고-019호(2019.01.22~2019.12.31)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9-01565호(2019.04.30~2019.12.31)

누구보다 먼저 KEB하나은행과 함께하는
행복미래설계를 시작하세요